

壬亂 實記文學의 類型과 그 特性

張庚男*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避亂實記 |
| 2. 從軍實記 | 5. 扈從實記 |
| 3. 捕虜實記 | 6. 맺음말 |

1. 머리말

壬亂 實記文學은 임진왜란을 체험한 작자가 자신이 직접 겪은 체험의 실상과 체험의 과정에서 느낀 개인적인 정서와 사상을 記, 錄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표현하여 후대인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비허구적 문학이다. 문학 장르면으로 볼 때 임란 실기문학은 역사적 사건을 체험한 작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주로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여 후세에 교훈을 주려고 하는 敎述的 性向을 지닌 敘事文學으로서, 작품의 審美的 藝術性보다는 소재의 現場性과 斬新性에 주안을 두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 작가의 개인적 감정을 호소력있게 표현하여 문학적 진실성을 구현하려는 장르이다.¹⁾

임란 실기문학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체험을 한 체험자의 기록으로, 작가가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다고 하더라도 임진왜란이라는 공통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직접 체험한 실기문학 작가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역할, 활동 양상에 따라 임진왜란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고 판단하여 기술하였다.

* 숭실대 국문과 강사

1) 줄고, 壬辰倭亂 實記文學 研究, 숭실대 박사학위 논문, 1997.12. 참조.

왜적을 피하려다 적군에게 포로가 된 작자는 일본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겪은 일이나 포로생활에 대한 일들을 기술했고, 전쟁에 직접 참가하여 왜적과 싸움을 벌였던 작자는 왜적과의 대치상황이나 진중에서의 생활 등을 기술하였다. 참담한 난리를 겪으며 피란생활을 한 작자들은 자신이 겪은 난리의 참상이나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글로 표현하였다. 그런가 하면 왜란을 만나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의주로 몽진하게 되자 왕을 호종한 작자들은 조정으로 들어 오는 갖가지 전황에 대한 이야기나 왕의 처지를 기술하기도 했다. 한편, 임진왜란 후에 임란의 원인이나 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건을 보고 들은 바대로 기술한 것도 있다. 이렇게 임란을 체험한 작자들의 체험세계, 역할, 신분, 활동 양상 등에 따라 임란 실기문학은 그 내용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임란 실기문학은 저작자의 체험 방식에 따라 그 하위 유형으로 從軍實記, 捕虜實記, 避亂實記, 扈從實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포로실기만이 그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을 뿐 나머지 유형의 작품들은 체험 상황이 서로 겹쳐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초기에는 피란가기에 급급해 가족들을 이끌고 여기저기로 피란하다가 의병에 참가해 의병활동을 펼친 체험을 서술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임란 실기문학은 피란실기이면서 종군실기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그리고 호종실기는 임금의 피란을 따르는 작가가 서술한 실기로 어쨌든 피란 체험이므로 피란실기와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한편의 실기문학 작품에는 종군, 피란, 호종의 체험이 동시에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체험의 경중과 작자의 신분, 역할, 활동 양상에 따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우선 피란실기이면서 종군실기의 성격을 띠는 작품들, 즉 처음에는 피란을 하다가 의병활동에 참가해 종군 체험을 서술한 작품들은 종군실기로 분류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임란 초기의 상황에서는 제대로 정세를 판단하거나 전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어느 정도 정세 파악을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의병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그 비중은 후자의 경우가 더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호종실기도 피란 체험이긴 하지만 왕을 호종하는 특별한 처지에서의 체험 기록이므로 호종실기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임란 실기문학을 위의 네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從軍實記

從軍實記는 작자가 임진왜란에 장군, 종사관, 의병 등으로 참전하여 왜적과의 전투 상황, 진중의 생활상 등을 서술한 실기이다. 임란 실기문학 중에서 종군실기에 속하는 작품은 李庭範의 『西征日錄』, 李擢英의 『征蠻錄』, 柳成龍의 『懲毖錄』, 尹國馨의 『聞韶漫錄』, 李魯의 『龍蛇日記』, 李舜臣의 『亂中日記』, 趙靖의 『壬亂日記』, 鄭慶雲의 『孤臺日錄』, 趙慶男의 『亂中雜錄』, 安邦俊의 『隱峯野史別錄』 등이다.

從軍實記는 전투에 직접 참여한 작자들의 기록으로 전황과 진중에서의 생활모습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임란 중 陸戰三大捷의 하나로 불리는 연안대첩을 이끈 장수 李廷範이 쓴 『西征日錄』의 기록 가운데 연안성 전투에 관한 서술을 들어보자.

28일. 연안성에 머물다. 식후에 왜적 4천여 명이 서면으로부터 들어와서 外南山 및 西門 밖에 진을 치고 종일토록 조총을 쏘아대어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으나 아군은 버티면서 종일 굳게 지키고 片箭으로 10여 명을 쏘았다. 적은 밤이 다하도록 물러가지 않았다. 배천 의병 봉요신, 조서룡 등이 성을 넘어서 밤에 나아가 배천 의병장 조응서 등에게 내원할 것을 청했으나 응서가 오지 않아서 병기만 가지고 돌아와 성을 타고 넘어 들어왔으니 참으로 의사이다. 隨陪 유대춘이 야음을 타고 도망쳤다.

29일. 연안성에 머물다. 왜적은 계속 공격하며 물러가지 않아서 종일 서로 싸웠다. 밤 4시경에 왜적은 雲梯를 타고 급히 성의 서남쪽을 공격하니 아군은 힘껏 싸우면서 나무와 돌로 난격을 가하니 죽는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았고 그제서야 겨우 퇴각하였다.

초1일. 포위된 연안성에 머물다. 왜적은 衝車로 성벽을 부수려고 하였으나 아군은 飛樓에서 내려다 보며 활을 쏘고 혹은 쇠에 불을 질러 던져서 태우므로 적은 성 가까이 오지를 못하였다. 밤에 배천별장 金自獻·의병장 조응서가 사람을 보내 성을 타고 넘어왔으니 그는 군사를 이끌고 涼洞에 도착하여 야간 공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보냈다. 평산 조방장 李嗣禮가 사람을 보냈는데 군사 1백여 명을 이끌고 내원한다는 것이어서 약속을 받고 돌아갔다. 그러나 약속한 사람들은 밤이 다하도록 오지를 않았으니 침통할 뿐이다.

초2일. 평명 때 적은 포위를 풀고 물러갔는데 남은 왜적도 무려 수천명으로 배천을 향하여 갔다. 이번 거사에 방비는 채 갖추지 못했고 대적이 쳐들어 오는데 외부에서의 원병은 이르지 아니하니 만약 성중의 사람들이 굳게 지키지 아니하였다더라면 함몰했을 것은 명확한 사

실이다. 우마 30여 두와 군기 약간을 얻었다. 아군은 사수 중 적탄을 맞고 죽은 자가 10여 인이었다.²⁾

이 인용문은 4일간의 연안성 전투에 관한 서술로, 직접 전투를 이끈 장수로서 당시의 전황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4일간에 걸친 전투에서 왜적의 밤낮없는 공격, 의병들의 활약, 아군의 방어, 구원병의 약속 위반, 전과 등 전황에 대해 서술했다. 작자는 구원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음을 비판하는 반면 성중의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성을 지킨 것을 칭송해 오히려 일반 백성들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작자 자신이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전황을 서술한 작품으로는 이 작품 외에 『난중일기』를 들 수 있고, 임란 전반에 걸친 전황을 자세하게 서술한 작품으로는 柳成龍의 『懲毖錄』과 趙慶男의 『亂中雜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安邦俊의 『隱峰野史別錄』 가운데 〈驚梁記事〉와 〈晉州敘事〉는 각각 노량해전, 진주성 전투라는 한 사건에 대한 서술로 이루어진, 서사적 긴밀성이 돋보이는 글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실기문학은 역사적 사실과 사건, 인물 등의 소재를 작가 체험의 추이에 따라 기록함으로써 소재가 일회적인 것으로 기능하며, 작품의 시작과 끝도 작가의 일정한 구도 속에서 논리적인 짜임새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체험 세계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작품도 끝을 맺는 진술의 한시성을 띠고 있다.³⁾ 이에 비해 <노량기사>와 <진주서사>는 작가가 생각한 일정한 구도 속에서 서술을 하고 있다. 이는 작품의 형식면에서도 드러난다. 각 작품은 먼저 사건 전모에 대한 개략적인 서술로 시작하고 있다.

靑梁은 남해 앞바다에 있다. 統制使가 전사했을 때 偏裨(副將) 宋希立이 대신 수군을 거느리고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 뒤 송희립은 水使가 되었다. 통제사 李舜臣은 노량에서 왜적과 싸우다 전사했다.⁴⁾

萬曆 21년 계사(1593) 6월, 왜적은 晉州를 함락시켰다. 성을 지키던 여러 장수들도 모두 죽었다. 이보다 앞서 임진년 여름 왜적은 바다와 육지로 길을 나누어 호남을 공격하려고 피했으나, 수군은 한산도에 이르러 수사 이순신에게 패했고 육군은 진주성에 이르러 판관 金時

2) 李廷龜, 西征日錄, 李章熙 譯, 探求堂, 1977, 180~184쪽.

3) 이채연, 실기문학과 서사문학, 韓國敘事文學史의 研究(경산사계동박사화갑기념논총), 중앙문화사, 1995, 203쪽.

4) 安邦俊, 隱峰野史別錄, 이상익·최영성 역, 아세아문화사, 1996, 49쪽.

敵의 저항을 받아 모두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왜적들은 이것을 늘 분한으로 여겼다.⁵⁾

이렇게 작품의 서두에서 전황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을 하고, 싸움이 있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한 다음 그 사건의 전모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사건에 대한 서술은 역사적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진주서사〉 말미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을미년(1595) 겨울에 나는 광양현에서 우화를 만나 당시의 일에 대하여 물었다. 우화는 하나도 틀리지 않게 진술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더니, 마침내 목이 메이도록 울었다. …… 내가 듣기에 진주성의 포위는 열흘이나 계속되었다고 한다. 안에서의 지킴이 비록 견고하였으나 밖에서 도와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다한 뒤에 함락되었으며, 아무도 굴하지 않았다. 또 이 싸움에서 왜적은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왜적이 호남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리어 막은 공이야말로 어찌 巡遠의 작이 아니겠는가.⁶⁾

작자가 만났다고 한 林遇華는 진주성 방어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관군에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성을 나왔다가 왜적에게 붙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이다. 이 작품은 작자 안방준이 광양현에서 그를 만나 진주성 전투에 관한 일을 듣고 기록한 것이다. 이어서 진주성 싸움에 대한 작가의 평가이다. 진주성 싸움에서 구원병이 없어도 사력을 다해 싸운 결과 비록 함락되기는 했지만 왜적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혀 다른 곳이 무사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그리고 작가는 “내가 기록한 것과 대략 들어 맞았다. 삼가 그 글을 봄으로 인해 다시 내용을 보태거나 빼면서 윤색하여 ‘진주서사’라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미에 쓰고 있다. 이로 미루어 이 작품은 작자가 단순히 자신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작자의 의도에 의해 역사적 사실이 재구성되어 서술의 긴장감이나 구성의 치밀성이 돋보이는 문학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진중 생활상에 대한 서술은 신분이나 처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종군실기에 서술되어 있는 진중 생활상은 다음의 예문을 통해 볼 수 있다.

(가) 湖南 巡察使가 먼저 출발하였으나 얼마 가지 못하여 날이 저물었다. 湖南軍은 山上에

5) 안방준, 은봉야사별록, 위의 책, 55쪽.

6) 안방준, 은봉야사별록, 진주서사, 위의 책, 66~67쪽.

서 駐兵하고 使相은 村家를 찾아 結陣하였으므로 우리들은 다행히 한 칸 방을 얻어 무릎을 맞대는 것도 족한 일이다. 종일 굶어서 곤하더니 밤 늦게야 식사를 하고 나니 生氣가 난다.⁷⁾

일행 上下가 몸이 가려워 이를 잡기에 바쁘고 밤에는 스스로 옷을 세탁하여 젖은 옷을 입은 채 말리니 애석한 일이다. 어젯밤에는 官婢의 빗을 빌려 와 모두가 머리를 빗게 되어 감사하다. 서울에서 別破陣에 근무하던 朴雲壽가 병으로 오늘 아침에 죽었다. 可惜한 일이다. 내 몸도 큰 병을 겪은 후에는 자주 병이 생겨 조식을 건디기 어렵지만 野營 生活을 하는 동안 습기가 많은 곳에서 먹고 자고 하여도 큰 병은 없으니 참으로 다행이다.⁸⁾

(나) 6월 8일. 잠깐 맑다가 바람이 불고 온화하지 않다. …… 광양 현감이 쇠고기를 내와서 함께 먹다. 탐후선이 들어오다. 각 고을의 色吏 11명을 처벌하다. 玉果鄉所는 전년부터 군사를 영솔해 오는 일에 근실하지 못하여, 결원이 거의 수백 명에 달했는데도 매양 속여 허위 보고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형에 처하여 효수하다. 모진 바람은 그치지 않고 마음 속도 산란하다.⁹⁾

7월 1일. 잠깐 비. 國忌日(仁宗祭日)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하다. 홀로 누상에 기대어 나라의 형세를 생각하니 위태롭기가 아침 이슬과 같은 데 안으로는 책략을 결정할 만한 棟梁之材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만한 柱石之臣이 없으니 아지 못하겠다.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심사가 번거로워 종일 輾轉反側하다.¹⁰⁾

위의 인용문 (가)는 李擢英의 『征蠻錄』에, (나)는 李舜臣의 『亂中日記』에 서술된 진중 생활의 한 모습인데 생활상이 대조적이다. 『정만록』에서 작자는 촌사에서 겨우 방 한 칸을 얻어 지내고, 온 종일 굶다가 밤 늦게야 밥을 먹고, 밤이면 이를 잡기에 바쁘고, 젖은 옷을 입어서 말리고, 습한 곳에서 야영 생활을 하는 등 진중에서 겪는 고충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난중일기』의 작자는 엄격하게 군사들을 통제하면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 번민에 찬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정만록』의 작자 이탁영은 순찰사 金陴의 막료로 참전했고, 『난중일기』의 작자 이순신은 장수로 참전했던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서는 주로 개인의 주변적, 일상적 모습이 단순히 서술되고 있는데 반해, 후자에서는 진중 생활을

7) 李擢英, 征蠻錄, 1592년 6월 12일 조, 李虎應 譯, 義城文化院, 1992, 48쪽.

8) 이탁영, 정만록, 1592년 5월 23일 조, 위의 책, 71쪽.

9) 李舜臣, 亂中日記, 계사년(1593) 6월 8일 조, 이석호 역, 집문당, 1993, 55쪽.

10) 이순신, 난중일기, 을미년(1595) 7월 1일 조, 위의 책, 157쪽.

개인의 그것을 넘어선 국가적, 애국적 차원으로 끌어 올려 서술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군실기에 서술된 진중생활의 모습이 작자의 신분에서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종군실기 작자들은 왜란을 맞아 왜적에게 짓밟힌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족과는 떨어져 진중에서 지내는데, 모든 것이 불편하기만 한 생활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며 고뇌에 찬 날들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진중에서 고단한 생활이 거듭되면 될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모습은 아련히 떠올라 번민에 사로잡히게 마련이다. 더구나 왜적의 분탕질이 심해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족의 안녕은 더더욱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적과 대치하고 있다는 불안감보다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종군실기 작자들은 자신의 고단한 생활상을 서술하면서 동시에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서술하고 있다.

居昌에서 留하다. 金山郡은 地廣도 좁고 작은 郡인데 兪賊의 殺掠이 날로 심하여 本郡의 보고에 의하면 死亡者가 2,200 餘名이라 한다. 기타 큰 邑의 死亡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참혹하고 비통할 따름이다. 知禮에 있는 積을 義兵大將 金沔이 어제 출동하여 완전히 잡아 불살라 버렸고, 도망한 남은 積은 主簿 襄榘이 星州 軍을 거느리고 가서 다 죽였다고 한다. 湖南 美女가 많이 포로로 잡혀 왔는데 哀乞하여도 불태워 죽였다 하니, 참혹하여 들을 수가 없다. 軍官인 奉事 姜晚男이 銃丸에 맞아 죽었다. 그는 往年에 軍功으로 及第하여 勇名을 떨쳤다. 別도의 狀啓에 데리고 간 我軍 戰死者가 무려 50 餘名이라 한다. 날씨는 벌써 추워지는데 老母妻子가 깊은 산중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견디지 못하여 아마 죽었으리라. 물어 보아야 소용이 없구나.¹¹⁾

이 글은 『정만록』에 서술된 내용이다. 집을 떠나 항상 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진중에서 가족을 걱정하는 심정이 아주 절실하게 서술되어 있다. 주변에서 들려 오는 왜적의 살육과 납치 등에 비통해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안녕을 걱정하고 있다. 왜적을 피해 산중으로 피란을 한 가족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견디지 못하여 아마도 죽었을 것이라는 상상에 이르자 물어야 소용이 없다는 체념에 가까운 한탄을 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걱정은 그리움으로 바뀌어 서술되며, 그리움의 표현은 주로 꿈속의 일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11) 이탁영, 정만록, 임진년 8월 2일 조, 앞의 책, 126쪽.

곤하여 잠이 들었더니 꿈에 本鄉人 李陽健을 만나서 가서 몇 장을 받았는데, 붉은 종이에 붉은 글씨로 되어 있었다. 그 중 한 장에 '父主前上白是'라 쓰인 것을 보고 이는 庭蘭의 편지라 그만 좋아서 봉투를 뜯기도 전에 어머님과 妻子의 存亡을 물으니 모두 탈없이 있다고 하기에 그만 좋아서 배를 타고는 봉투를 뜯으려 하다가 홀연히 잠이 깨어 버렸다. 어머니와 자식 생각에 실컷 울어 버렸다.¹²⁾

『정만록』에 서술된 꿈속의 일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꿈속으로 이어져 아들의 편지를 받고는 좋아하는 모습으로 서술되었으나 꿈을 깨어 버리고는 더욱 그리움에 사무쳐 울어 버린 것이다.

이처럼 진중에서 겪는 고단함 못지 않게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은 종군실기에 잘 서술되어 있다. 이로써 종군실기의 주된 정조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조는 특히 『정만록』과 『난중일기』에서 잘 드러난다.

종군실기의 작가들은 왜적을 크게 무찌른 영웅적인 활약상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전란을 맞아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도 그려내고 있다. 작자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일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이정암의 『서정일록』 한 부분을 예로 들어 보자.

한낮에 왜적이 이미 임진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전해지니 촌민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당황하였다. 비록 그 소문이 헛소문인지 사실인지 분명히는 모르겠으나 놀랍고 두려움을 형언할 수 없다.¹³⁾

위 인용문에서처럼 작자는 비록 연안대첩을 승리로 이끈 장수였지만 왜적이 이르렀다는 소문을 듣고는 놀라고 더구나 두려워하는 모습은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이다. 왜적이 이르렀다는 소문만 들리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피란을 하기에만 급급해, “다시 들은 즉 잘못 전해진 것이라 마침내 산을 내려와서 유숙”(6월 1일)하고, “말을 탄 사람이 많이 산길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상한 사람이라 하여 급급히 숨었다. 하루에 두번 놀라고 보니 가히 우습다”(7월 13일)라고도 했다. 임란 초기에는 적의 행편을 알 수 없는 처지여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당황하곤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일기 속에 솔직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전란이라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고뇌하는 모습은 작품 곳곳에 나타난다.

12) 이탁영, 정만록, 임진년 6월 8일 조, 앞의 책, 64쪽.

13) 이정암, 서정일록, 5월 11일 조, 앞의 책, 32쪽.

식후에 가족 수십명이 채연으로부터 이곳에 왔으나 비를 무릅쓰고 跋涉하여 형색이 慘慘하니 하늘이 장차 그 곤궁하고 괴로움을 어디까지 주려는지. 다 죽이고 남겨두지 않을 것이니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장차 떠돌아 다니다가 한 모퉁이에 붙어 있게 되어 다 죽게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인지.¹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작가 자신의 운명을 생각해 보면 처참하기 그지 없는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하늘만 믿을 수밖에 없으니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6월 4일)고 하거나, “살고 죽는 것이 명일진대 하늘에 기대할 뿐이다”(6월 21일)라고 하는 등 나약한 작자 자신의 모습을 일기 속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약하기만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해 놓은 것으로 실기문학만이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은 다른 인물과의 갈등을 통해서도 드러나 장군으로서의 영웅적 모습만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적 정취마저 느끼게 한다. 이러한 갈등의 모습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에서 원균과의 갈등을 표현한 부분에서 보인다.

2월 22일. 새벽에 구름이 검더니 동풍이 크게 불다. …… 진도의 좋은 배 한 척도 적에게 포위되어 거의 구하지 못하게 될 즈음에 우후가 곧장 달려가 구해내다. 慶尙左衛將과 右部將은 보고도 못본 체하고 끝내 구하지 않으니 그 패섬함을 이루 표현할 길 없다. 참으로 통분하다. 오늘의 통분함을 가히 어찌 다 말하라. 모두 경상우수사 원균의 탓이다.¹⁵⁾

『난중일기』에는 도처에서 원균과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는데 위의 인용문은 그 한 예문이다. 원균의 행위나 성격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패섬하다’, ‘통분하다’, ‘불가형언이다’, ‘홍물스럽다’, ‘망녕되다’, ‘해괴하다’, ‘우습다’, ‘가소롭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인간적 경멸감을 나타내고 있다. 작자가 통제사가 된 계사년(1593)의 기록 가운데 원균의 못된 인간성을 말한 대목만도 30여 개소에 이른다. 그 후 갑오년에서 정유년에 이르면서 언급이 차츰 줄어들고 있음은, 그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여겨진다.¹⁶⁾ 원균

14) 이정암, 서정일록, 5월 19일 조, 앞의 책, 44쪽.

15) 이순신, 난중일기, 계사년(1593) 2월 22일 조, 앞의 책, 38쪽.

16) 蘇在英, 英雄傳承의 文學的 形象化-李舜臣의 경우-, 『崇實語文』 제2집, 숭실대국어국문학회, 1985, 16쪽.

과의 관계로 인해 임금에 교서를 내리자 교서를 받고 서로 이야기 해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원군의 공을 기뻐해 주기도 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원군을 용서해 주기도 하여 사심에 매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 작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종군실기에는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大義를 위하여 우국의 일념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의병활동에 참가했던 작자들의 실기는 임란 초에 왜적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피난하기에 급급했었지만 전란의 참상을 경험하고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일념 하에 의병활동을 전개한다. 趙靖의 『壬亂日記』를 예로 들어보자.

조반 후에 察訪 權從卿·內翰 鄭景任 등과 함께 黃嶺 洞口로 가서 倡義하여 討賊할 일로 회동하였다. …… 議定이 끝난 뒤 主將은 北向하여 재배하고 통곡하며 해를 두고 맹서하였다. 그런 다음 모든 사람들도 북향하여 절을 하였다. 그리고 또 주장에게 절을 하였다. 이에 주장이 말하기를, “나라의 옥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오늘의 맹서는 죽음이 있을 뿐 변심하여 더럽힘이 없도록 하라.”고 하자 모두들 그리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또 정경입에게 명하여 동맹의 뜻을 기록하여 同盟錄의 編首에 적도록 하였다. …… 슬프다! 오늘의 모임은 말라고 해도 그냥두지 못할 뿐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이다.¹⁷⁾

위 인용문은 작자 일행이 창의하여 거사할 것을 모의하여 李逢을 주장으로 추대하고 작자의 임무를 정하는 의논을 한 다음 북향 재배하고 맹서를 하는 장면이다. 북향 재배를 한 다음 맹서록을 쓰고 군율을 세워 싸움에 임하는 결의를 보이는 장면에서 오직 나라를 위하겠다는 일념을 엿볼 수 있다. 이 장면은 비장감마저 감돌아 읽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내도록 한다. 작자는 이 모임을 “말라고 해도 그냥두지 못할 뿐 아니라 꼭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어 그의 우국충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또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면 작자는 진중에서 아내의 병세가 중하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나라가 전란에 처해 왕은 몽진하는 지경에 처해 있으니 “나라의 일이 이러한 데 다른 일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먼저 나라일을 걱정하는 서술을 통해 작자의 우국충정의 모습이 드러난다.

1월 1일. 맑음.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국사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른다.¹⁸⁾

17) 趙靖, 壬亂日記, 선조25년 7월 30일 조, 李鉉淙 編譯, 趙靖先生文集, 1977, 177쪽.

18) 이순신, 난중일기, 을미년(1595) 1월 1일 조, 앞의 책, 135쪽.

7월 1일. 잠간 비. 國忌日(仁宗祭日)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하다. 홀로 누상에 기대어 나라의 형세를 생각하니 위태롭기가 아침 이슬과 같은 데 안으로는 책략을 결정할 만한 棟梁之材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만한 柱石之臣이 없으니 아지 못하겠다.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심사가 번거러워 종일 輓轉反側하다.¹⁹⁾

나라일을 생각하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오고, 밤에는 잠도 이루지 못해 輓轉反側하는 모습 등을 통해 우국충정에 여념이 없는 작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우국충정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작자의 실생활 속에서 엿볼 수 있다.

3월 6일. 맑음. 아침 식사 후 출근하여 군기를 검열했는데 활·갑옷·투구·箭筒·環刀 등이 파괴되고 찢어진 것이 많아 色吏·弓匠·監考 들을 문책하다.²⁰⁾

6월 8일. 잠간 맑다가 바람이 불고 온화하지 않다. …… 각 고을의 色吏 11명을 처벌하다. 玉果鄉所는 전년부터 군사를 영솔해 오는 일에 근실하지 못하여, 결원이 거의 수백 명에 달했는데도 매양 속여 허위 보고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형에 처하여 효수하다. 모진 바람은 그치지 않고 마음 속도 산란하다.²¹⁾

4월 22일. 맑음. …… 김 조방장이 와서 盧天紀가 술을 먹고 주책없이 굴다가 본영 鎮撫黃仁壽, 成卜들에게 욕을 당했다고 아뢰므로 곤장 30대를 때렸다.²²⁾

군령을 엄격히 해서 군을 통솔하는 것은 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작자의 우국충정의 마음은 한갓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생활을 통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李魯의 『龍蛇日記』에서도 보인다.

5월 이후에 네 차례나 장계를 올렸으나 한 번도 회답이 오지 않았다. 간혹 회답이 있긴 하였지만 그것은 승정원에서 받았다고 통보할 뿐 별로 가부에 대한 말이 없었다. 그 때 유성룡은 밖에 있고 윤두수가 나라의 일을 맡아 보았다. 공은 북쪽을 향하여 가슴을 치고 눈물을

19) 이순신, 난중일기, 을미년(1595) 7월 1일 조, 앞의 책, 157쪽.

20) 이순신, 난중일기, 임진년(1592) 3월 6일 조, 앞의 책, 23쪽.

21) 이순신, 난중일기, 계사년(1593) 6월 18일 조, 앞의 책, 58쪽.

22) 이순신, 난중일기, 병신년(1596) 4월 22일 조, 앞의 책, 203쪽.

홀리며 길이 탄식하였다. 정인홍이 공을 三嘉의 淨襟堂으로 와서 뵈기에 밤중까지 마주 앉아 이야기했는데, 공의 慷慨激烈한 憂國의 정성은 한층 더 빛났다.²³⁾

안동은 공의 鄉邑이다. 가게 되면 선영에 성묘하고, 가족들을 볼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도끼를 쪼고 고향에 돌아감은 常情으로도 기뻐할 일이거늘 하물며 이 난리 가운데 있어서라. 하지만 버려두고 감으로 해서 오는 성패 문제를 깊이 걱정하였으니, 그 나라를 근심하여 집을 잊음이 이와 같았다.²⁴⁾

조정에 장계를 올려도 회답이 없는 등 왜란으로 인해 정사는 엉망이고, 더구나 의주로 몽진한 선조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듯한 서글픔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 김성일의 우국충정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작자는 김성일이 가족과 집 걱정은 뒤로 하고 오로지 나라를 근심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으며, 나라를 걱정하는 이러한 마음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공은 명령을 받들어 온 뒤 능히 적을 소탕하고 심기를 가라앉히지 못해 나라의 은혜를 저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여 밤낮 걱정하고 노력해서 心熱이 몹시 증하더니 요즘와서는 內傷에 外感을 낀 데다가 역질 기운마저 타고 들어서 4월 19일에 머리를 앓기 시작하여 점점 위험하고 괴로운 지경에 이르렀다.²⁵⁾

그 위독할 때는 비록 혼미해서 의식이 없고 귀신에 감촉되어 실신하고 꿈 속에 못볼 것을 보아 실신하게 된 중에도 입을 달싹달싹 그칠 줄 모르는 헛소리는 나라일 아닌 것이 없었다. 때로는 간혹 목을 베고 소리를 높여서 “明兵은 이미 이르렀느냐, 이 적들은 이미 도망갔느냐”라고 말할 뿐, 시종 한 말도 가정 일에는 미치지 않았다.²⁶⁾

나라일을 걱정하는 중에 병이 들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도 가족의 일은 커녕 나라 일을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 작자는 김성일의 애국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구호로 이어져, “은 도내 유량 민은 공이 행차하면 길에 모여들고 머무르면 뜰에 짹짹 치는데 반드시 소금과 쌀을 나누어

23) 李魯, 龍蛇日記, 全圭泰 譯, 乙酉文化社, 1974, 104쪽.

24) 이로, 용사일기, 위의 책, 110쪽.

25) 이로, 용사일기, 위의 책, 178쪽.

26) 이로, 용사일기, 위의 책, 179쪽.

주었다.”²⁷⁾ 이렇듯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그 지성이 가슴 속에 가득해 “밤을 새워가며 잠 못이루고 걱정하더니 귀밑털과 눈썹이 그로 인해 하얗게”²⁸⁾ 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는 한편 군사들을 돌보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작자는 기술하고 있다.

공은 군에 기율이 없어서 聚散이 無常하므로 科條를 정하여 모든 고을에 전령하기를 ‘도망치는 것이 풍습을 이루니 스스로는 잠깐 사이라고 생각하나 많은 수가 흩어져 도망가면 일일이 법을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軍伍에 본래 통솔이 있으니 열 명이 도망하면 統將을 빼고, 통장이 도망하면 都訓導를 빼고, 一軍이 도망하면 領將을 빼며, 도망자를 보고도 붙잡지 않는 자도 같은 죄에 처한다’라고 하고, …… 일군이 모두 심복하여서 감히 도망치는 자가 없었다.²⁹⁾

난중에 군기가 엉망인 것을 보고는 강력한 통제를 가하여 군사들을 복종하게끔 하였으며, “매일같이 성을 순시하고 마루와 망루를 검사해 다스렸다 …… 날마다 新北門樓에 앉아서 군사를 사열하고 사격을 연습하게 했다”³⁰⁾고 해 군사를 조련하는 데도 애를 쓰는 장수로서의 김성일의 모습을 서술했다. 이런 점은 전란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으로 김성일의 우국충정의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서술 방법면에서 볼 때, 종군실기는 전투장면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산문의 서술방법은 설명, 논증, 묘사, 서술의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역사 기술과 같은 글은 사건의 개요에 대하여 주로 설명과 논증의 방법이 쓰이는데 반해 소설과 같은 문학적인 글은 네 가지가 적절히 혼합되면서 서술과 묘사의 방법이 주로 쓰인다. 이 가운데 작자가 직접 체험한 사건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장면 묘사는 실기문학의 두드러진 서술방법의 하나로 종군실기의 전투장면 묘사는 훌륭한 문학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가) 初6日 使相이 湖南陣中에 가셔서 李·白 두 장수의 戰死를 들으시고 매우 슬퍼하시다가 兩湖 兵馬를 모조리 보내어 總攻擊을 하고 本道 將士들도 助戰하게 하려는데 上下將士들이 朝飯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대치하던 우리 軍馬가 급히 退却하기에 그 까닭을 몰라 당황하였다. 벌써 적은 커다란 白旗를 앞세우고 맞은편 山上에 나타났다. 忠淸道 大陣이 瓦解되

27) 이로, 용사일기, 위의 책, 139쪽.

28) 이로, 용사일기, 위의 책, 163쪽.

29) 이로, 용사일기, 위의 책, 67쪽.

30) 이로, 용사일기, 위의 책, 177쪽.

고 별안간 隊列이 혼란해져 버렸다. 우리는 軍旗를 말아서 威陽使令에게 맡기고 다만 世子敎書만은 몸에 간직하였다. 湖南 使相은 먼저 말을 달려 떠나갔으나 우리 使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 계신다. 나는 앞에 나아가 형편이 급박하오니 말을 타시라고 소리쳤으나, 使相은 모두를 鎮定시키실 작정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기에 다시 將士가 없는데 혼자만 害를 당하시면 賊의 勝利는 그만 두고라도 國家의 辱이 되니 물러나 뒷날을 도모하시라고 소리쳤다. 賊이 眼前에 이르자 급히 亂軍으로 말을 달렸다. …… 무논[水碓]으로 말을 몇 짝 달리다가 돌아보니 後軍은 거의 없고 賊은 추격해 왔다. 金郡守의 말이 진흙에 빠져 넘어지니 말을 버리고 달아났고, 馬夫 仇龍은 옷을 벗어 버리는 동안 따라오지 못하였다. 召村의 驛馬夫를 金에게 붙여서 말을 맡게 하였더니 金의 말도 넘어져서 使相은 홀로 달리다가 또 물에 빠지셨다. 나는 급히 敎護하여 말에 오르게 하여 겨우 賊鋒을 피하였다. 하늘이 도우셔서 두 生命을 구하시고 忠孝를 함께 하도록 하시었다. 다시 30리쯤 달리니 中房 金愛孫이 달려오고 營吏 李湖도 印信을 가지고 왔는데 말도 없고, 黑笠도 없이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貴賤을 알아볼 수 없다. 亂軍이 앞뒤로 밀렸기 때문에 前進하기가 어려웠다. 十生九死로 40餘里를 달려서 사람과 말이 피곤하므로 잠깐 山谷에서 쉬었다.³¹⁾

(나) 이튿날 아침에 대군은 평양을 포위하고 普通門·七星門을 치니 적병은 성 위에 올라가 紅白旗를 내세우고 대항하였다. 이에 이 편에서는 대포와 火箭으로 치니 그 소리는 땅을 울려 수십 리 사이의 산들이 모두 움직이는 듯 요란하였고, 火전이 비단처럼 공중에 날아 쏟아지니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火전이 성 안에 떨어지자 곳곳마다 불이 일어나 수목이 모두 타고 있었다. 駱尙志와 吳惟忠 등은 親兵을 거느리고 개미처럼 성에 기어 오른다. 앞의 군사가 떨어지면 뒤의 군사가 올라 하나도 물러나는 자가 없다. 성 안에는 적의 칼과 창이 마치 고슴도치 털처럼 벌려 섰건만 중국 군사는 더욱 힘써 싸우니 적들은 대적치 못하고 內城으로 쫓겨 들어갔다. 이 싸움에 적병은 칼에 맞고 불에 타 죽은 자가 부지기수였다. 우리 군사는 다시 적의 뒤를 쫓아 내성으로 쳐들어갔다. 적들은 성 위 토벽에 구멍을 많이 뚫어놓아 벌집과 같았다. 그 틈으로 총을 어지러이 쏘며 대항했다. 이 바람에 우리 편 군사가 적의 총에 많이 상했다. 이를 본 제독은 궁한 적을 급히 치다가 오히려 우리 군사가 많이 상할까 걱정하여 성 밖으로 군사를 거두어 적의 달아날 길을 열어주니, 그 밤으로 적들은 허겁지겁 얼음 위로 강을 건너 달아났다.³²⁾

(다) 9월 16일. 맑음. 이른 아침에 別望軍이 나와 보고하되, 적선이 부지기수인데 곧장 우리 배로 향해 들어온다 한다. 곧 여러 배에 전령하여 닻을 걷고 바다로 나가게 하니 적선

31) 이탁영, 정만록, 1592년 6월 6일 條, 앞의 책, 59~61쪽.

32) 柳成龍, 懲愆錄, 李民樹 譯, 乙酉文化社, 1970, 150쪽.

330여 척이 우리의 여러 배를 에워싼다. 여러 장수들이 중과부적임을 알고 도망갈 궁리만 한다. 우수사 金億秋는 벌써 아득한 곳으로 물러 가 있다. 나는 노를 재촉하여 앞으로 돌진하여 地字砲·玄字砲 등 각종 총들을 바람과 우뢰같이 마구 쏘아대며, 군관들도 배 위에 가득 서서 빛발같이 어지러히 쏘아대니, 적도들은 당적지 못하고 나왔다 물러갔다 한다. 그러나 적에게 몇점으로 둘러싸여 형세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며, 온 배에 있는 장병들이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을 잃는다. 나는 조용히 타이르되, 적이 비록 1,000척이라도 우리 배를 당적지 못할 것이다. 동심하지 말고 진격하여 적을 쏘아라 하고, 여러 장수의 배들을 돌아보니 먼 바다에 물러나 있으면서 관망하고 진격하지 않는다. 내 배를 돌려 바로 중군장 金應諫의 배로 가서 먼저 그 목을 베어 효시하고 싶으나, 내 배가 머리를 돌리면 여러 배들이 차창로 멀리 물러날 것이요, 따라서 적선이 점점 육박해 오면 일은 아주 낭패라, 곧 호각을 불어 中軍令下旗를 세우고 또 招搖旗를 세우니, 중군장 미조항 첨사 김응함의 배가 차츰 내 배에 가까이 오고, 거제 현령 安衡의 배가 먼저 온다. …… 적장이 그 휘하선 세 척을 지휘하여 한꺼번에 개미 불듯 안위의 배로 매달려 서로 먼저 올라가려 다툰다. 안위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죽기로서 맹세하고 싸우다가 힘이 거의 다하게 되었다. 내 배를 돌려 곧장 쳐들어가 빛발치듯 쏘아대어 적선 3척이 남김없이 전멸되는데, 녹도만호 宋汝棕과 平山浦 代將 丁應斗의 배가 계속하여 이르러 협력하여 적을 쏜다.³³⁾

(라) 우리 군사가 왜적 36급을 弓藏峴에서 죽였다. 이날 새벽에 또 가족을 숲속에 숨겨 두고 몇 사람의 하인을 거느리고 왜적을 토벌한다고 성명하니 따르기를 원하는 자가 20여 명이 되었다. …… 송림으로부터 출발하여 가다가 요천 위의 방암봉에 올라가 숨어서 망을 보니 총적 50여 명이 입실로부터 소와 말을 불고 축천정을 지나 곧장 동도역 앞 소로로 행진하는 것이었다. …… 말을 듣고 退縮한 자가 7·8명이었다. 단지 수십명을 거느렸는데, 궁시를 가진 자는 나와 김·정·박언량 네 사람뿐이었다. …… 마침내 고향치며 활줄을 세계 당겨 가지고 진진하니 적병이 칼을 뽑고 총을 안고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먼저 형세를 타지못하였다 하여 겁을 먹고 모두 후퇴하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 죽기로 나선 자는 6명뿐이었다. 싸움이 한창 붙게 되자 구룡을 한계로 삼아 왜적으로 하여금 난입할 수 없게 하고 또 먼저 총 가진 자 3·4명을 쏘아서 죽였기 데 멀리서 덤빌 염려는 제거되었으나 적은 많고 우리는 적어 힘이 서로 대적이 안 되었다. 왜적의 前鋒인 5명의 적이 곧 맞아 죽은 뒤로 나머지 왜적이 일시에 포위하고 들어오니 우리들은 포위망 속에서 사면으로 발사하였다. 얼마 동안 치열하게 싸우자 왜적은 더욱 목숨을 내걸고 먼저 丁君을 쳐서 왼발 복사뼈를 찍어 대고 그 다음으로 박언량을 치니 박언량이 활과 살로 그것을 막아서 활은 쪼개졌으나 사람은 죽음을 면했다. 박언량은 맨 손을 포위를 뚫고 나와 모난 몽둥이를 들고 다시 들어가니 정군도 자기

33) 이순신, 난중일기, 정유년(1598) 9월 16일 조, 앞의 책, 273~274쪽.

상처를 돌보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난사하였다. 나와 김군도 죽음을 각오하고 혈전하는데, 뜻 밖에도 김군의 활이 또 부러지니 한 놈의 왜적이 김을 쫓아가서 일이 매우 위급하므로 내가 돌아서며 그를 쏘니 한 살에 바로 죽었다. …… 이때에 적병으로 죽은 자가 15·6명이 넘었는데, 모두 싸움을 경험해 본 놈들이라 감히 결사적으로 싸워왔다. 그런데 나도 화살이 떨어져 급하게 경계를 부르니 필남은 뒤에 처진 사람이 가지고 있던 화살을 던져 주므로 나는 살을 주워서 소곤 하였다.³⁴⁾

위의 인용문 중 (가)는 이탁영의 『정만록』에 나오는 부분으로 嶺南, 湖南, 湖西의 삼도 순찰사가 함께 근왕병을 일으켜 서울로 향하던 중 왜적을 만나 대치하던 상황과 왜적을 피해 도망하는 상황이 아주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 亂軍中の 상황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나)는 유성룡의 『징비록』 가운데 한 부분으로 작자가 이여송의 명나라 군대와 합세하여 평양성을 탈환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작자는 도체찰사로서 직접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전투장면을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다)는 이순신의 『난중일기』 가운데 한 부분으로, 1597년 원균의 모함과 왜군의 모략으로 인해 모든 관직을 박탈 당하고 백의종군한 후 통제사에 재임용되어 군사 120명과 12척의 전함으로 명량에서 왜선 대함대와 대결하여 승리한 전투를 묘사한 부분이다. (라)는 조경남의 『난중잡록』에 나오는 부분으로 작자가 의병에 참가하여 벌인 싸움을 묘사한 대목이다.

이처럼 전투 장면에 대한 묘사는 종군실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위의 전투장면의 묘사를 보면 그 묘사의 수법이 뛰어나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는 듯해 비문학적인 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표현의 우수성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서술방법상의 측면에서 볼 때 종군실기는 작자가 체험한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단순히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이로 하여금 생생한 현장감과 아울러 긴박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종군실기는 전황 묘사, 진중에서의 생활상,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의 표현, 어머니에 대한 효성심,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 인간적 고뇌의 모습, 전투장면에 대한 생생한 묘사 등을 서술하고 있어 실기문학이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기록하는 기록물 이상의 문학적 감동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34) 趙慶男, 亂中雜錄, 정유년(1597) 9월 23일 조, 국역대동야승 6권, 민족문화추진회, 1969, 163~165쪽.

3. 捕虜實記

포로실기는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잡혔다가 풀려난 작자들이 쓴 실기문학으로 權斗文의 『虎口錄』, 魯認의 『錦溪日記』, 姜沆의 『看羊錄』, 鄭慶得의 『萬死錄』, 鄭希得의 『月峯海上錄』, 鄭好仁의 『丁酉避亂記』 등이 있다. 이 중 강항의 『간양록』, 노인의 『금계일기』, 정호인의 『정유피란기』, 정경득의 『만사록』, 정희득의 『월봉해상록』은 포로가 되어 일본에 잡혀갔다가 귀국한 체험 내용을 담고 있는 실기이고, 권두문의 『호구록』은 국내에서의 포로 체험을 기록한 실기이다.

捕虜實記는 모두 작자가 피랍되어 귀향할 때까지의 일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실기에 비해 작품의 시작과 끝도 일정하여 짜임새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공통된 서술 구조는 ‘避亂(防禦)-被拉-捕虜 生活-脫出-苦難-歸鄉’의 구조로 짜여져 있으며, 그 내용은 포로 체험이 주가 된다. 시작과 끝의 완결된 서술 구조는 다른 실기에 비해 구조적으로 짜임새를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란실기인 吳希文의 『瑣尾錄』 마지막 부분에

“이 뒤로는 중이도 다 되어 그만 쓰기로 한다. 또 서울에 도착했으니 流離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³⁵⁾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 실기문학은 작자가 체험한 바를 기록함에 있어 그날 그날의 상황에 따라 소재가 선택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의 체험한 것 중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한 편의 작품으로 구조화한다 하더라도 유기적인 짜임새는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³⁶⁾ 이에 비해 포로실기는 다른 실기와 마찬가지로 작자의 체험 세계를 기록한다고 해도 피랍에서 귀국 또는 귀향까지의 포로 체험을 기록해 구조적으로 짜임새가 있는 기록이라는 인상을 준다.

權斗文의 『虎口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가) 彦英이와 말을 주고 받는 동안 순간에 왜 한 명이 몸을 던져 돌입하여 언영이의 옷 소매를 잡아 묶으매 나는 두 손에 창을 들어오는 왜를 찌르려 할 찰나 적의 칼은 먼저 나에게 내려온다. 순간 康女가 나의 등에 엮드려 “나를 죽일지언정 나의 남편은 아니된다.” 하니,

35) 吳希文, 瑣尾錄, 李民樹 譯, 海州吳氏楸灘公派宗中, 1990, 504쪽.

36) 李琛衍, 壬辰倭亂 捕虜實記 研究, 박이정, 1995, 201쪽.

鬪는 나를 껴안고 통곡한다. 굴 안이 좁아서 칼이 벽에 부딪치고 나에게는 닿지 않았다. 내가 몸을 일으켜 서려 할 때에 칼이 내 팔에 맞아 피가 물같이 흐른다. 적은 나를 먼저 묶고 강녀를 잡으니 강녀는 평상시의 안색과 말투로 “내가 어디 가리오.” 하며 나를 따라 굴을 내려 오다가 왜병이 손을 잡으려 하니 장차 왜병에게 욕볼 것을 미리 짐작하고 사다리에서 천인절벽에 떨어지니 왜도 탄식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뒤를 돌아다보니 주도 묶이어서 따라오고 있다.³⁷⁾

(나) 통역 왜인은 상관의 명이라면서 나를 굶은 밧줄로 큰 기둥에 묶는다. 그리고 서울에 사람을 보냈는데 곧 그 답이 오리라고 하니 우리의 생사는 밤을 사이에 두고 있는 듯하다. 빙허루의 수리가 다 끝나서 우리를 그 쪽으로 옮긴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적들은 반드시 우리가 파 놓은 벽의 구멍을 발견하게 될 터인즉 우리를 죽일 것이 분명하다. 왜병이 창가로 급히 다가오기만 해도 겁이 나고 떨어져 불안 속에 밤을 맞이했다. …… 우리가 서로 떨고 있을 즈음 갑자기 천둥이 치며 큰 소낙비가 쏟아진다. 밖은 캄캄하여 지척을 분별치 못한다. 그때 왜병 2명이 다가와서 무언가 지껄이며 우리를 살펴보고는 등을 들고 곡식 쌓아 둔 곳으로 내려가고 다른 왜병 군졸들은 마루 바닥에서 잔다. 파수지기 왜병들은 雷雨가 심하니 우리가 도망치지 않으리라 믿고 간 듯하다. …… 벽의 구멍으로 나가서 긴 마루를 지나 이번엔 다시 성주 기둥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 까치 구멍을 통하여 지붕으로 나왔다. 기왓장을 몇 장 걷어내고 우리를 결박했던 줄을 풀어 이어서 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묶었다. 흙이 떨어지는 소리가 약간 났으나 빗소리와 천둥 소리 때문에 적들이 듣지 못한 모양이다. 나는 지붕의 기왓장을 밟고 줄을 타고 내려와 문밖으로 나오니 그렇게 아프던 발도 가벼워지고 아픈 줄조차 몰랐다. 동쪽 벽에 붙어서 살펴보니 파수병은 없고 아들 주가 따라온다. 무사히 내려왔다 한다. 서로 손을 잡고 대문 밖을 나오니 그때의 부자의 정은 형언할 수 없었다.³⁸⁾

(다) 주를 기다리고 있을 즈음에 한 사람이 앞산 위에 짧은 바지를 입고 관을 쓰지 않고 서서 이쪽을 살피고 있다. 언영이가 먼저보고 왜들이 아니냐고 한다. 나도 그런 줄로 알았다. 그 사람 뒤로 몇 사람이 뒤 따르고 있었다. 왜들이 좌우로 둘러싸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 줄로만 알았다. 주가 햇볕에 말리기 위해 바위 위에 널어놓은 옷 두 벌을 챙겨가지러 갔다. 그들이 그 옷을 알아보면 내가 평창군수라는 것을 알 것이다. 큰일이다. 언영이는 어느새 바위 틈새에 숨었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사세가 이렇게 되니 왜적의 손에 붙잡혀 죽기보다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바위 위에서 몸을 굴렀다. 높이는 사람의 키로 7~8키나 되는 높이였으나 굴러서 떨어졌기 때문에 온몸에 찢어진 상처만은 심했으나 목숨이 끊어지지는

37) 權斗文, 虎口錄, 8월 11일 조, 權寧植 譯, 정문사, 1992, 24쪽.

38) 권두문, 호구록, 9월 2일 조, 위의 책, 52~53쪽.

않았다. 조금만 더 구르면 낭떠러지가 되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안간힘을 다하여 떨어지려 할 즈음 바위 위에서 언영이와 주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³⁹⁾

(라) 아침밥을 재촉해 먹고 馬該川에 와서 늪은 중 信官에게 길을 물어 길 옆집에서 밥을 대접하는 것을 얻어먹고 馬兒峴을 넘어가다가 고개 위에서 金德驛을 만나 말에서 내리려 하니 金은 말에서 못 내리게 만류하면서 붙잡고 온다. …… 저녁 식사후 柳汝新의 말을 갈아타고 어둡기 전에 廣峴에 와서 松亭 先祖墓에 재배하고 한참을 통곡하였다. 助臥洞 路上에서 權景涉, 李汝翁과 조카 黠과 奴輩가 맞아 주었다. 말에서 내려 서로 통곡하였다. 陵洞 墓 앞에 이르자 역시 말에서 내려 울면서 절하였다. …… 圓塘에 이르니 벌써 밤이 깊었다. 노친께서는 사립문 밖까지 나오시어 내 손을 잡으시고 하염없이 우신다. 나는 가슴이 메어지는 듯 하며 목이 메어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울음을 참고 처자 비복들이 소리내어 우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⁴⁰⁾

위 인용문은 피랍되는 장면부터 탈출, 탈출 후 고난, 집에 도착하여 가족과 상봉하는 장면까지를 요약해 보인 것이다. (가)는 작자가 피랍되는 순간에 대한 정황 서술이다. 왜적에게 목숨을 잃을 뻔하였으나 부인이 먼저 몸을 던져 죽임은 면하고 잡히게 된 상황을 서술한 부분이다. (나)는 포로로 잡혀 있다가 탈출하는 장면이다. 작자 일행은 8월 28일 탈출하기로 계획한다.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몸이 정상은 아니지만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작자의 귀환 의지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왜적의 감시가 뜬해지자 도피할 목적으로 빠져나갈 곳을 두루 살펴보니 벽 밖에는 긴 마루방이 있고 마루방과 벽이 맞닿는 곳에 성주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는 빈 구멍이 있어 일단 벽을 뚫기로 한다. 벽을 뚫어 놓고는 기회를 엿보다가 9월 2일 비가 내리는 밤 탈출을 시도하여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한다. 탈출하는 순간의 장면 묘사가 아주 실감나게 서술되었다. (다)는 탈출하여 도망하는 장면으로 뒤쫓아오는 왜적을 피하기 위해 겪는 고난들을 서술한 것이다. 이후로 산머루와 다래 솔잎 등을 씹으며 도망을 하다 지나는 곳의 마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왜적에게서 탈출한 지 10여일 만인 9월 13일 드디어 집에 도착하게 된다. (라)는 이 글의 끝 장면으로 집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서술한 부분이다. 집으로 오는 도중 조상들의 묘를 지나면서 재배 통곡하고, 드디어 집에 도착해 가족과 상봉하는 장면을 서술했다.

이와 같이 포로실기는 내용상으로 볼 때 ‘피란(방어)-피랍-포로 생활-탈출-고난-귀향’의 서술 구조로 짜여져 있어 비교적 짜임새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9) 권두문, 호구록, 9월 3일 조, 위의 책, 56~57쪽.

40) 권두문, 호구록, 9월 13일 조, 위의 책, 66~67쪽.

한편, 포로실기에는 포로들의 생활상이 여러 모로 서술되어 있다. 특히 일본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의 생활상을 일본 체험 포로실기를 통해 볼 수 있어 포로들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槐山을 만났다. 그는 槐山 사람이기 때문에 괴산이라 부르며, 임진년에 잡혀 올 때는 나이 8세였는데 이제는 이미 14세가 되었다. 스스로 말하기를 '양반집 아들'이라 하며 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나도 따라서 눈물이 옷깃을 적셨다. 다리 위에서 河天柱를 만났다. 아파성 아래 길다란 강이 있고, 강 위에 홍예다리가 있는데, 다리 위에서는 매양 열 사람을 만나면, 8~9명은 우리 나라 사람이다. 하군은 晉州의 이튿난 족벌인데, 왜인의 외양간 시종과 꼴 머슴을 살고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달밤이면 다리 위에 모여, 혹 노래도 부르고 휘파람도 불며, 혹은 회포도 말하고 한숨지어 울부짖기도 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진다.⁴¹⁾

위의 인용문은 鄭希得의 『月峯海上錄』에 서술된 내용으로 일본에서의 포로들의 생활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서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 와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 조선에서의 신분과 관계없이 머슴을 살기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지만 이로 미루어 볼 때, 포로들은 각양각색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위의 예에서처럼 달밤이면 다리 위에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휘파람도 불며, 혹은 회포도 말하고 한숨지어 울부짖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또 다른 포로실기에 보면 모여서 시를 주고 받으며 회포를 풀기도 하고, 서신을 주고 받으며 위로를 하고, 탈출을 도모하기도 하며 지내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 포로 체험의 괴로움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인으로 귀화한 인물에 대해서도 포로실기에는 서술되어 있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화한 사람들의 실상도 엿볼 수 있다.

(가) 이곳에 당도해 보니 우리 나라 남자와 여자로 전후에 사로잡혀 온 사람이 무려 천여 명인데, 새로 붙잡혀 온 사람은 밤낮으로 마을 거리에서 떼지어 울고 있으며, 먼저 온 사람은 반쯤 왜 사람에게 귀화하여 돌아갈 생각이 이미 없어져 버렸기에, 신이 가만히 몸을 탈출하여 서쪽으로 달아나자는 것을 깨우쳐 보았더니, 호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⁴²⁾

(나) 박수영의 집에 가 보니 妻子가 있어 한 살림을 차렸고, 생계도 풍족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내 집은 建春門 밖에 있었소." 하는데, 백발이 이미 성성했다. 차를 끊어 내오고 대

41) 鄭希得, 月峯海上錄, 무술년 3월 4일 조, 국역 해행총재 8권, 민족문화추진회, 1989, 238쪽.

42) 姜沆, 看羊錄, 賊中封疏, 국역 해행총재 2권, 민족문화추진회, 1989, 114쪽.

집이 극진했다. 왜 풍속에 손이 오면 반드시 차를 끓여 대접한다.⁴³⁾

인용문 (가)는 姜沆의 『看羊錄』에 수록되어 있는 〈賊中封疏〉의 내용 일부이다. 새로 포로로 잡혀 온 사람들은 밤낮으로 울면서 지내고 있으나, 포로로 잡혀 온 지 이미 오래 된 사람들은 귀국을 포기하고 아예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탈출하지는 작자의 말에도 호응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나)는 정희득의 『월봉해상록』에 서술된 귀화인의 모습이다. 포로로 잡혀 일본에 와서 처자식을 거느리고 생활을 하는데 생계도 풍부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들의 생활 풍속도 이미 일본의 풍속에 젖어 손님이 오면 차를 끓여 대접하고 있다고 했다. 이 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일본에 정착한 포로들이 적지 않았고, 그들은 쉽게 일본 생활에 적응해 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月峯海上錄』, 『萬死錄』, 『丁酉避亂記』, 『錦溪日記』 등에는 포로 생활의 심회를 서술한 부분이 많은데, 작자의 서정적 정조가 많이 투영되어 있어 작자의 문학적 감성이 두드러진 편이다. 특히 작자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서정성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작자들이 오랜 기간 고국을 떠나 포로로 억류되어 있었으므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진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⁴⁴⁾ 그리고 비록 억류 생활을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여건도 이러한 표현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월봉해상록』을 예로 들면,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서술 특징은 自然 景物에 빗대어 작자 자신의 심회를 토로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배가 한 곳에 도달하니, 새 우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놈들 나라의 물색은 펄시 밤중 같으려니 했다가, 이제 초목의 빛깔과 새 짐승의 소리가 죄다 우리 나라와 같은 것을 보니, 보이는 것마다 더 한층 비통한 심사만 보텔 뿐이다.⁴⁵⁾

우연히 한 곳에 이르러 보니 매화가 활짝 피었고, 못 가에는 풀이 푸릇푸릇하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매화를 좋아해서 뜰에 가득 심었더니, 하늘 한 가에서 景物을 보는 감회가 더욱 견디기 어렵다.⁴⁶⁾

43) 정희득, 월봉해상록, 기해년 1월 5일 조, 앞의 책, 268쪽.

44) 이채연, 앞의 책, 250쪽.

45) 정희득, 월봉해상록, 정유년 12월 8일 조, 앞의 책, 230쪽.

46) 정희득, 월봉해상록, 무술년 2월 8일 조, 앞의 책, 234쪽.

우연히 시장에 갔다가 조롱 안에 든 외로운 새를 보았다. 그 조롱으로 둘러 갇힌 정상이 바로 내 몸과 같다. 몇 마디 슬피 우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가에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슬픈 회포가 갑절이나 간절했다.⁴⁷⁾

밤에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온갖 감회가 가슴에 가득하거늘, 어찌 너조차 평생 밑에 들어와서 다시금 한없는 나그네의 시름을 자아내어 외로운 배개에 눈물을 금치 못하게 하는가?⁴⁸⁾

이처럼 포로 생활의 심회를 자연 사물인 새, 매화, 귀뚜라미 등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포로 생활의 외롭고 비통한 심사가 더욱 견디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우리 나라 준마가 家政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는 “저것들도 서쪽에서 잡혀 와서 전장의 먼지에 더럽혔으니 주인을 그리워하는 심정은 나와 일반일 듯, 미물을 보고 우러나오는 심회 이루 말할 수가 없다”(1598년 4월 28일)고까지 해 그 슬픈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조롱 안에 갇힌 새를 보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모습에서는 포로로 잡혀 있는 자신의 처지와 조롱 안에 갇혀 있는 새를 동일시하고 있다. 조롱 안에 갇힌 새의 슬피 우는 소리는 바로 자기 자신의 절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작자는 새의 울음 소리를 듣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만다.

자연 사물을 통한 포로 생활의 심회는 포로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 사물에 빗대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직접 토로하고 있기도 하다.

저녁에 한 곳에 당도하니 왜인의 집 두셋이 강을 따라 있는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마치 우리 나라 촌락과 같았다. 그 소리를 들으니 문득 고국 생각이 간절하였다. 아마도 주인을 그리워하는 심정은 짐승이나 나나 서로 마찬가지로인 듯하다.⁴⁹⁾

밤에 개구리 소리를 들으니, 옛날 池塘에서 듣던 것이 뚜렷이 떠올라 고향 생각이 갑절이나 간절하다.⁵⁰⁾

47) 정희득, 월봉해상록, 무술년 2월 15일 조, 앞의 책, 235쪽.

48) 정희득, 월봉해상록, 무술년 8월 4일 조, 앞의 책, 251쪽.

49) 정희득, 월봉해상록, 정유년 12월 9일 조, 앞의 책, 230쪽.

50) 정희득, 월봉해상록, 무술년 3월 19일 조, 앞의 책, 241쪽.

異域의 자연 현상이 고향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강하게 다가온다. 포로실기에 나타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대부분 이처럼 事物의 情景化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詩를 통해 표현되기도 해 포로실기는 다른 실기에 비해 문학적 형상화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포로 생활의 심회를 詩로 읊어 표현해 낸 것은 포로실기에만 보이는 특징이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 글로써 서술할 수 없는 정감의 표출은 시로 표현하여 글 중간 중간에 삽입하고 있다.⁵¹⁾ 이채연 교수는 포로실기에 한시가 많이 삽입되어 있는 이유를, 시간적 여유, 능력과시,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한 수단, 산문의 내용 요약 내지 전환의 효과로 보고 있다.⁵²⁾ 그리고 왜국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文才였을 것이다. 이 중에서 시는 그들의 정감을 표출하는데 적절한 수단이었다.

22일. 밤에 죽으려는 새 소리를 듣고 죽속(希得)이 시를 읊었다.

밤새도록 죽으려고만 하니 무슨 일 때문이고	終宵欲死緣何事
죽지 못하고 사람에게 매었으니 죽은 것이나 일반일세.	未死羈人怨一般
죽으려고 하는 여생 아직 죽지 못하니	願死餘生猶未死
소리 소리 달빛 맞으며 공산에 가득하구나	聲聲和月滿空山
내가 차운하여,	
이 몸이 죽지 못하고 아직도 연명을 하니	此身求死猶延命
너와 더불어 슬피우는 한이야 다를 손가	與汝哀鳴恨一般
이미 그물을 벗어나 환고향 하는데 도리어	
조롱 속에 갇히니	既脫網羅還鎖籠
지금의 혼이 꿈에 고국강산 넘어가네. ⁵³⁾	只今魂夢越江山

포로들의 생활을 서술한 것 중 공통적인 것은 매일 매일 가족과 고향에 대해 그리워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望鄉의 정조는 포로실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것은 귀환 의지로 바뀐다.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포로 생활의 고단함은 하루 빨리 왜국을 벗어나 귀국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켜 귀환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작자의 귀환 의지가 작품 속에 표현된 예를 『월봉해상록』을 통해 보자.

51) 특히, 정희득의 『월봉해상록』은 총 2권 중 제 2권이 모두 시로 구성되어 있다.

52) 이채연, 앞의 책, 212~223쪽.

53) 鄭好仁, 丁酉避亂記, 1599년 4월 22일. 이현석 역,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1986.

마침 醫僧으로 長延이라 부르는 자가 곁에 있다가, 글을 써 보이며 위로해 말하기를, “입은 옷이 얇아 딱하지만 이곳은 기후가 따뜻하니 견딜 수 있을 것이오.” 하기에, 내가 답을 써 보이기를, “맘은 오직 한국하는 데 있을 뿐이니, 춥거나 더운 것은 상관하지 않소.”하였다.⁵⁴⁾

이제 우리 형제 나이는 이미 늙고 마음은 이미 병들었으나, 다만 이 쓸 곳 없는 인생 고국에 돌아갈 생각만 간절합니다.⁵⁵⁾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극복하는 일은 오로지 귀환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친하게 지내던 일본인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마음 속에 가득찬 생각은 오직 귀환할 생각뿐이었다. “돌아가고 싶은 일념 물과 같이 도도해서”(1599년 1월 3일), “방금 옷을 벗어 가지고라도 배를 사서 바다를 건너려고 낮밤으로 계획을 짜고”(1598년 12월 28일) 했던 것이다. 귀환 의지는 작품 곳곳에 보이는 前漢 武帝 때 匈奴에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된 지 19년 만에 귀국한 蘇武에 관한 고사⁵⁶⁾를 인용한데서도 엿볼 수 있는데, 결국은 고향에 돌아간 소무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귀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과연 아킬 만한 선비인가를 시험해 보는 데도, 억지로 옹하게 된다.

내 어찌 차마 이런 경우에 시를 지으리오마는, 돌아가 부친을 뵈옵기는 오직 이 한 길이 있을 뿐이라 강박하여 잼싸게 지었더니, 그 중이 매우 기뻐하여 제법 아까워하는 기색이 있었다.⁵⁷⁾

종일토록 책을 배겼다. 말하자면 글 품을 팔아서 얻은 은전으로 배를 사서 한국할 계획을 하자니, 이 짓 말고는 다시 한 푼을 마련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그 괴로움을 참아야 했다.⁵⁸⁾

일본인들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글 잘하는 선비들은 그래도 후하게 대접을 해 주

54) 정희득, 월봉해상록, 무술년 1월 3일 조, 앞의 책, 232쪽.

55) 정희득, 월봉해상록, 무술년 5월 14일 조, 앞의 책, 246쪽.

56) 『月峯海上錄』에는 소무에 관한 이야기가 빈번히 나온다. 작품 곳곳에서 ‘看羊(양을 지킴)’, ‘餐雪(눈을 씹음)’, ‘齧雪掘鼠(눈을 먹고 쥐를 잡아 먹음)’, ‘雁足之書(기러기 발에 부쳤던 편지)’, ‘上林園’, ‘大澤(양을 치던 큰 못)’ 등의 속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소무의 사적 속에서 나온 말이다.

57) 정희득, 월봉해상록, 무술년 2월 19일 조, 앞의 책, 236쪽.

58) 정희득, 월봉해상록, 무술년 9월 21일 조, 앞의 책, 254쪽.

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시험하였는데, 작자는 오직 돌아갈 마음으로 시를 지어 주었다. 그리고 괴롭지만 글품을 팔아서라도 귀환하려고 하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⁵⁹⁾ 특히나 작자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조심하여 함부로 죽지 말고 돌아와 늙은 아비와 만나게 해 다오.”라고 했던 부친의 당부가 항상 귀에 쟁쟁해 고국으로 돌아갈 염원만으로 살아갔다. 부친의 당부는 곧 귀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錦溪日記』를 쓴 魯認과 의 서신 교환 내용도 있는데, 노인에게 답서로 보낸 편지에도 “들으니 흉한 적기가 저절로 죽자 집안끼리 화란이 일어날 것이라 하니, 틈을 타서 훌쩍 떠나는 것이 바로 이 때”(1598년 9월 9일)라고 해 항상 귀환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다.

귀환 의지가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 탈출이다. 포로 중에 앞에서 보았던 대로 일본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했다. 그런데 탈출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음을 포로실기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탈출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잡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이들 포로실기에 서술되어 있는데 姜沆의 『看羊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禹鼎은 全羅左兵營의 虞侯 李曄에 대해 말하였다. 그가 청정에게 사로잡히자 청정은 수길에게로 보내니, 수길이 대우하기를 지극히 후하게 하여 帳御와 음식을 모두 자기들 생활과 같이 하여 주었다. 이엽은 적으로부터 받은 비단 등속을 다 훔쳐서 임진년에 사로잡혀 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배를 사서 서쪽으로 나갔다. 일행이 赤間關에 당도하자 추적하는 자가 이미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 이엽은 칼을 빼어 자살, 바다 가운데로 떨어졌다. 적은 이엽의 시체를 끌어내고, 나머지 사람과 함께 거리에서 수레에 사지를 걸어 찢어 죽였다.⁶⁰⁾

위의 예문으로 미루어 보아 탈출을 시도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꽤나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 인용문에서는 왜국에서 후하게 대접을 해 줘도 불구하고 오직 귀국의 일념만으로 살다가 탈출을 시도한 李曄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작자는 이어서 시 한 수를 지어 그의 기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잡혀 죽느니 차라

59) 글씨 품을 팔아서 귀환을 도모하는 예는 강항의 『간양록』에도 보인다. “내가 왜의 땅에 들어온 후로 뼈라도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일찍이 한 순간도 풀어진 적이 없었다. 왜국의 풍습은 돈만 있으면 귀신이라도 부릴 수 있다. 그래서 드디어 倭僧 舜首座를 따라 글씨 품을 팔아서 은전을 얻고는, 남몰래 임진년에 포로된 사람 신계리·임대홍 등과 함께 서로 결탁하였다.”(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60) 강항, 간양록, 섭란사적, 앞의 책, 222쪽.

리 자살을 택한 것을 칭송한 것이다. 위의 李曄의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무사히 귀국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밤에 梁彥萬이 배를 훔쳤다고 알려 왔다. 동생이 따라가기로 뜻을 결정하고 짐까지 싸 들고 나왔기에 내가 만류하며 이르기를, “萬全한 계획이 아니다. 공연히 죽기만 하지 덕볼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후 돌만의 배는 土佐 앞바다까지 갔다가 뒤쫓는 왜인에게 잡혀서 배에 탄 사람 거의 반이 배어 죽임을 당했으니 참혹하고도 참혹하다.⁶¹⁾

위의 『萬死錄』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귀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상으로 포로실기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포로실기는 다른 임란 실기문학에 비해 짜임새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짜임새 있는 구성은 서사성에 기여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내용상으로 볼 때 포로실기에는 포로들의 생활상이 여러모로 잘 드러나 있다. 異國에서 겪는 생활의 고단함과 그로 인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주로 서술되어 있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사물의 정경화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詩를 통해 표현되기도 해 포로실기는 다른 임란 실기문학에 비해 문학적 형상화가 뛰어나다. 또한 망향의 정조는 귀환 의지로 표출되어 서술되기도 했다. 귀환 의지는 많은 사람들의 탈출 시도로 행동화되기도 해 포로실기에 서술되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으로 귀화해 그곳 풍속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의 생활상도 서술되었다.

4. 避亂實記

避亂實記는 왜적을 피해 여러 지방을 전전하며 피란 생활을 기술한 것으로 吳希文의 『瑣尾錄』, 柳紜의 〈임진록〉, 鄭榮邦의 〈壬辰遭變事蹟〉이 있다. 이들 작품은 피란길에 올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겪은 쓰라린 피란 생활의 광경과 체험한 이야기를 소상히 기록하였다. 즉, 피란을 가는 도중 곳곳에 쌓여 있는 시체들의 모습, 먹을 것이 없어서 도토리나 솔잎을 먹으며 연명하며 생명을 지탱해 가는 모습들을 통한 심각한 기아문제, 질병의 유행, 전란중 가족간의 이별, 왜군들의 살륙, 납치, 관료들의 부패와 背任의 폐단, 관군의 횡포, 의

61) 鄭慶得, 萬死錄, 1598년 8월 21일 조,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1986, 58쪽.

병을 빙자하여 갖은 악행을 일삼는 의병, 附倭한 인물들에 대한 비판, 난민들의 행패나 각박한 민심, 조선을 구원하러 온 명나라 군대에 대한 기대 및 행패 등 임란 기간중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한편, 피란을 하면서도 느끼는 혈육의 정이나 온정을 베푸는 백성들의 모습, 왜적을 피해 절개를 지키는 부녀자들의 모습들도 그려내고 있다.

피란시기에는 작자들이 피란을 하면서 보고 들었던 일반 백성들의 참상이 잘 드러나 있으나, 특기할 만한 것은 '가족간의 이별과 해후'라는 공통된 서술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유진의 <임진록>은 작자가 체험한 당시의 기록이 아닌 몇 십년이 지난 후에 작자의 회고로 이루어졌다. 작자가 임란을 만나 피란을 시작하여 가족과의 이별을 하는 데서 기록이 시작되어 다시 온 가족이 재회하는 것에서 끝맺고 있는데, 내용 구성면에서 살펴 보면 크게 삼분할 수 있다. 즉,

- 임란이 발생해서 가족과 헤어져 매형에게로 간 것
- 매형의 가족과 함께 피란하면서 겪은 체험
- 아버지에게 가려고 매형의 가족과 헤어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인 것

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매형의 가족과 함께 피란하면서 겪은 체험이 위주가 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면에서 볼 때는 가족간의 '이별과 해후'라는 커다란 구도 속에서 매형의 가족과 피란하는 도중 갖은 고생과 또 한번의 이별과 해후가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자의 체험 세계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작품도 끝을 맺고 있지만 작품의 시작과 끝이 일정한 구도에 의해 짜여져 있는 것이다.

오희문의 『쇄미록』도 부분적으로 가족간의 이별과 해후가 서술되어 있다.

(가) 새벽에 꿈을 꾸니 아내도 같은 집에 있는데, 완연히 평일과 같다. 막내딸 端兒는 분을 바르고 깨끗이 단장했는데, 내가 무릎 위에 안고 앉아 그 볼을 만지면서 말하기를, “너도 내 생각을 했느냐?” 하니, 울면서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다가 바야흐로 아내와 각각 헤어져 있던 외로움을 말하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깨니 몸은 나무 밑에 누워 있고, 동방이 이미 밝아 온다. 꿈속의 일을 깊이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난리가 난 뒤로 세 번 꿈속에 보이니 살았는가 죽었는가. 어지하여 이렇게 자주 꿈에 보이는가? 늙은 어머니는 한번도 꿈에 보이지 않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꿈속 일은 비록 헛일이지만 꿈속에서라도 한번 뵈고자 해도 또한 되지 않으니, 내 정성과 효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비통함이 더욱더 심하다.⁶²⁾

62) 오희문, 쇄미록, 1592년 7월 3일 조, 앞의 책, 41쪽.

(나)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은 후에 어머니가 계신 北面 바닷가 所斤浦의 水軍 崔 仁世의 집으로 가니, 어머니는 내가 온 것을 보고 소리를 내어 슬피 울면서, “오늘 다시 살아서 만날 줄 몰랐다.” 하신다. 나도 슬피 울어 두 소매가 다 젖는 것을 이기지 못하였다. 당초 난리중에 우리 모자가 각각 남북에 있어 생사를 모른 지가 8,9개월이 되는데, 오늘날 다시 어머니의 얼굴을 뵈오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우리 한 가족의 늙은 어머니와 처자, 형제, 남매가 각각 서로 보존하여 한 사람도 죽은 이 없이 이제 서로 만날 수 있으니, 그 기쁘고 다행함이 어떠하겠는가?⁶³⁾

(다) 端兒는 지난밤 初更 후에 다시 두통이 시작되어 아침까지 아프다고 소리친다. …… 生員(允諧)이 껴안고 앉았는데, 내가 양쪽 손을 잡았더니, 조금 있다가 기운이 위로 치밀면서 痰증세까지 겹쳐서 말이 통하지 못한다. 이에 竹瀝·淸蘇·달걀 노른자위·童子便 등을 무수히 썼으나, 약 기운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담과 엉겨서 끓어서 소리가 나면서 끝내 내려가지 않고 콧구멍으로 도로 나오고 역시 말 한 마디 하지 못하다가 巳時에 이르러 奄然히 가버리니, 붙들고 통곡하니 망극함을 어찌 하리오. 지난 해 9월 20일에 졸지에 이 병을 얻어 여러 달 동안 고생하다가 여기에 이르러 아주 가버리니 애통한 바음이 더욱 지극하여 가슴과 창자가 찢어지는 것만 같다. …… 내가 나갔다가 돌아오면 문득 먼저 나와서 맞아 내 손으로 옷을 벗지 않았는데, 애통하면 무엇하리오. …… 사람의 壽夭는 하늘에 있어서 비록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가장 痛恨스러운 것은 객지에 있기 때문에 醫藥을 전폐하고 오직 天命만 기다리고 사람이 할 일은 하지 못했으니 더욱 몹시 애통하다. ……저녁에 목욕을 시키고 염습을 하는데, 流離하는 중에 의복을 갖출 수가 없어서 다만 평시에 입던 옷 한 벌을 입혔으니 슬프고 슬프다. 내 딸이 평시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 의복과 음식을 남과 같이 해주지 못하다가 죽어서도 좋은 옷 하나를 얻어 염습하지 못하니 하늘에 닿는 남은 한스러움이 이에 그 지극함을 다하는도다.⁶⁴⁾

(가) 글은 작자가 고향을 떠나 장수에 와 있을 때 임란을 만나 혼자 피란하던 중에 꿈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꿈속에서라도 그리운 가족을 만나니 그 반가움이야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난리 후에 세번 씩이나 꿈속에 아내와 딸이 나타나니 반가움은 뒤로 하고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더구나 어머니는 한 번도 보이지 않으니 작자의 심정은 더욱더 비통할 수밖에 없다. 가족의 일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작자의 불안감과 그리움이 교차하고 있다. (나)는 떨어져 있던 가족과 만나는 장면이다. 피란 중에는 가족과

63) 오희문, 쇄미록, 1592년 12월 16일 조, 위의 책, 128쪽.

64) 오희문, 쇄미록, 1597년 2월 1일 조, 위의 책 下, 139~140쪽.

의 이별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다시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란 중에 이별했던 가족과 재회한다는 것은 크나큰 기쁨인 것이다.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가족을 8,9개월 만에 현실 속에서 다시 만나니 작자에게 있어서 그 기쁨과 다행함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이다. 그것도 전란 속에서 한 명의 죽은 사람도 없이 다시 만났으니 그 기쁨은 더욱더 크다. (다)의 인용문은 작자가 가장 사랑했고 소중히 여겨 항상 이불 속에서 같이 잠을 잤던 딸의 죽음을 보고 애통해 하는 장면이다. 전란의 와중에서 헤어졌던 가족을 아무런 사고 없이 다시 만났었는데, 이제 다시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되니 붙들고 통곡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자의 마음은 전란으로 인해 제대로 손을 써보지도 못한 것에 대한 원망으로 그 슬픔은 더 큰 것이다. 피란중이었기 때문에 객지에서 의약을 전혀 쓰지 못했으니, “사람이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더없이 애통”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리움과 기쁨과 슬픔의 한 모습이다. 작자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이고도 진솔한 감정들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영방의 〈임진조변사적〉은 주내용이 피란 중 겪은 여인들의 절개이지만 부분적으로 가족간의 이별 모습이 보인다.

형님이 나에게 “우리 형제가 함께 여기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니, 제각기 피한다면 혹시 살아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였으나, 내가 따르지 않자 등을 밀어 가게 하면서, “너는 걸음이 빠르고 또한 수영 솜씨도 있으니 이곳에 있으면서 함께 적에게 죽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다. 나는 나이가 어린데다 오래 망설이고 있었고, 또한 갑작스런 계획으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여 실수로 적이 오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 이미 위험을 벗어나 집안 식구들이 한곳에 모이니 모자 형제가 모두 한결같이 통곡하였다. 이날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다섯 사람인데, 우리 일가 여인 두사람과 한윤격의 처, 그밖에 두 사람의 손녀자였다. 사로잡힌 사람은 남녀 약간명이 있었으며, 칼에 찔렸으나 죽지 않은 사람이 펴 있었고 죽은 사람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숲속에서 하늘을 향해 곡성이 울부짖으니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⁶⁵⁾

위 인용문은 정영방의 〈임진조변사적〉 가운데 한 부분으로 왜적을 피해 가족과 함께 피난하던 중 왜적을 만나자 뿔뿔이 흩어져 혼자만 남게 된 상황에서 겪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전란으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의 모습은 피란살기 곳곳에서 보이는데 여기서도 작

65) 鄭榮邦, 壬辰遭變事蹟, 정석용역, 시사춘추 6월호, 1991.

자들이 일시적으로 고아가 되어 참담한 체험을 한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한편, 정영방의 <임진조변사적>에서는 피란 체험을 통해 작자 자신의 형수와 누이의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조금 뒤 한 왜적이 산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래로 내려오자, 형수가 이를 보고 바위 위에서 아래로 몸을 던지니 누님도 뒤따랐다. 그 바위 아래는 물이 도는沼였는데, 두 사람이 서로 이어 뛰어내려 물속에 빠져 죽었다. 노친은 보지 못했고, 우리가 옆에서 보았지만 어찌 할 수 없었다.⁶⁶⁾

위의 인용문은 작자의 일가족이 왜적을 피해 피란하던 중에 왜적을 만나자 형수와 누나가 몸을 던져 죽은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비록 옆에서 보고 있었지만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죽기 며칠 전에 형수가 말하기를 “꿈에 다리꼭지(여자의 머리를 꾸미기 위해 엮는 가발) 열 개를 주었는데, 이것은 무슨 징조입니까?” 하니, 곁에 친척 노파가 잇달아 “다리 꼭지는 머리의 꾸미개다. 이를 주었으니 어찌 좋은 징조가 아니겠는가?”고 하자, 형수가 “이런 때에 머리를 꾸미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 평소 형수를 볼 때 늘 은장도를 차고 있었으며, 누님도 손수 비단실을 땅아 끈목을 만들어 늘 허리에 지니고 있었으니, 그렇게 죽고자 한 계획과는 벗어났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죽을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미 작정한 지가 오래 되었다.⁶⁷⁾

이 인용문을 보면 이들의 죽음은 순간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평소에 지니고 있었던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란을 만나 꿈 속의 이상한 징조를 눈치채고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 여겨 늘 은장도와 비단실을 지니고 있다가 불행한 일을 만나면 죽으려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절개를 지키려고 한 여인들의 모습이 작자의 체험을 통해 표현된 것이다. 그리하여 작자는 이렇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있다.

아아! 죽고자 하여 죽음을 얻었으니, 죽은 자들에게 어찌 한이 있을까마는 뒤에 죽는 자로 하여금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하였으니, 어찌 일시에 죽지 못하여 이에 애통함을 안겨 주는가!⁶⁸⁾

66) 정영방, 임진조변사적, 위의 책, 162쪽.

67) 정영방, 임진조변사적, 위의 책, 165쪽.

68) 정영방, 임진조변사적, 위의 책, 165쪽.

이 작품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작자의 느낌을 서술한 것인데, 절개를 지켜 죽었으니 한은 없을 것이지만 그 죽음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비록 이 내용이 작자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를 통해 전란의 참상과 함께 여인들의 절개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또한 피란실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가족들과 관련된 개인의 일상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노비들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는데 다음의 예문과 같다.

安孫, 命卜이 2월 20일 새벽 일시에 도망했는데 전일에 두 종이 약속하고서 말을 가지고 양식을 싣고 달아났으니 통분함을 이길 수가 없다. …… 한 집이 두 곳에 있어서 양식과 찬거리가 모두 바닥이 났으므로 오직 兵糧의 쌀만을 기다려 먹으려 했는데, 불의에 도둑질해 갔으니 더욱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상전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말은 피란할 때 이를 믿고 다니는데, 이것을 훔쳐 가지고 달아났으니, 그 뼈아픔을 어찌 다 이르리오.⁶⁹⁾

德奴는 이곳을 떠난 뒤로 도처에서 상전의 물건을 훔치더니, 또 황해도에 사는 종들의 身貢까지 사사로이 멋대로 쓰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으며, 탄 중에 이르러서도 또한 훔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윗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고, 莫丁까지 또한 본받게 되었으니, 더욱 몹시 밉다.⁷⁰⁾

인아가 데리고 온 종 둘종이 새벽에 달아났다. 껌뻌하고 가증스럽다. 올 때 벗었던 옷을 입고 갔다. 흘치마까지 만들어 입혀서 오래 머물러 두고자 하였는데, 온 지 며칠만에 달아나 버렸다. 오는 도중에 두 계집종이 도망가고, 종 하나가 또 달아났으니 이제 계집종 하나뿐이다.⁷¹⁾

위 인용문은 오희문의 『쇄미록』에 서술된 것으로 전란의 혼란을 틈타 도망간 노비에 관한 글이다. 이러한 일은 누구나 겪은 공동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일상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전란으로 인한 혼란한 사회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임진왜란으로 인한 사회 기강의 해이로 말미암아 그 동안 엄격했던 신분제도가 무너져 내리는 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충직한 종들의 모습을 서술한 경우도 있다. 정영방의 〈임진조변사적〉에

69) 오희문, 쇄미록, 1593년 1월 17일 조, 앞의 책, 155쪽.

70) 오희문, 쇄미록, 1595년 1월 18일 조, 앞의 책, 415쪽.

71) 오희문, 쇄미록, 1597년 3월 8일 조, 앞의 책 下, 151쪽.

는 충직한 종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

이튿날 형님이 장차 다시 나가 죽은 사람을 거두고자 하니, 종 명춘이라는 자가 앞에서 울며, “적중에 출입하며 낮에는 숨고 밤에 다니며 시체를 강의 아래 위에서 찾아서 꼭 거두고자 했으나, 주인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청컨대 제가 한번 더 가서 시체를 찾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형님이 그 종이 평소 충실하고 믿을 만하다고 여겨 건장한 종 두서너 명을 붙여서 가게 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왜적이 있고 없고 간에 찾았는데, 먼저 누님의 시체를 거두어 강가에 묻었다. 형수의 시체는 찾지 못했지만 다만 당일 입었던 쓰개치마를 찾아 그곳에 같이 묻었다. …… 왜적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몰으니 명춘은 대답하지 않았으나 금동은 그곳을 일러 주었다. 이에 왜적은 곧 금동을 놓아주려 하고 명춘을 죽이고자 하였다. 명춘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죽으니 너는 바로 돌아가라. 돌아가거든 나의 주인에게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부탁하건대 애기한 바와 같이 하라”하고, 이에 허리띠 하나를 주어 돌아가게 했다. 이 물건은 죽은 누님 殮身의 것이었다. 생각하건대 옷을 갈아 입힐 때(시체에 수의를 입힘)주인으로 하여금 그것이 누님의 것인지 알게 하고자 함이다.⁷²⁾

전란을 맞아 혼란한 상황에서 주인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종들이 있는데 비해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명춘은 주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음에 이른 것이다. 작자는 “櫛(작자의 큰조카)가 난 지 이미 16개월이 지났으나 몸이 약하여 잘 건지 못하였다. 그래서 건장한 종을 시켜 업고 멀리 가도록 했으나, 적이 가까이 다치게 되자 마산 산기슭에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는 종의 사건을 통해 더욱 명춘의 충직함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왜적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몰어도 대답하지 않고 끝내 주인을 위해 죽은 사실을 서술함으로써 작자는 충직한 종의 행위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죽음에 이르도록 충직했던 종 명춘의 사건을 통해 전란 속에서도 잃지 않은 인간의 도리를 느낄 수 있게 한다.

피란실기는 작자 자신과 가족들에 관련된 임란 체험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피란민 전체의 모습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피란실기에는 피란민들의 참상이 여실히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 중 유진의 <임진록>과 정영방의 <임진조변사적>은 작자가 각각 11세, 16세에 임란을 당하여 가족들과 함께 피란을 하면서 겪은 일들을 기술한 것으로 일기체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작품으로 하나의 완결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72) 정영방, 임진조변사적, 앞의 책, 164쪽.

이와 같이 피란실기에는 전란으로 인한 참상이 여실히 서술되어 있으며, 작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로 서술되어 있어 개인의 일상사에 관한 내용이 많은 편이다. 구성상 피란실기는 가족간의 이별과 해후라는 구도로 짜여져 있다.

5. 扈從實記

扈從實記는 선조가 임진년 4월 30일 피란길에 올라 의주로 향했는데 大駕를 따르면서 왕의 곁에서 보고 듣고 겪은 바를 서술한 실기문학이다. 이 유형도 넓은 의미로는 피란실기에 해당되나 특별한 처지에서의 기록이기 때문에 피란실기와 구별해서 호종실기로 분류하였다. 鄭琢의 『龍蛇日記』, 金涌의 『扈從日記』, 朴東亮의 『寄齋史草』가 여기에 속한다.

扈從實記는 왕을 호종하면서 겪은 바를 쓴 것으로 조정에 올려지는 각종 전황에 대한 보고와 그 보고에 대한 조정에서의 의론, 청병에 관한 조정의 입장 등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鄭琢의 『龍蛇日記』와 金涌의 『扈從日記』는 작자 개인의 의견이나 느낌은 거의 서술하지 않으면서,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장계나 치보, 패문 등과 왕의 교서가 기록되어 있어 私的인 기록이라기보다는 공적인 기록의 성격이 강한 글들이다. 다만 狀啓나 馳報를 통한 전국 각지의 전황은 비교적 잘 알 수 있다.

鄭琢의 『龍蛇日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8일 乙亥, 맑다. 牛溪 成渾 浩原의 편지가 右議政에게 오다. 이때에 도적이 제멋대로 활 개쳐, 3편이 모두 이와 같으므로 전진할 수 없어서 여기에서 그대로 지체하옵고, 대소 관원이 모두 당초에 (이 방향으로 東宮 행차를 모시고 오자고) 건의한 사람을 닦하다. 이 날에 참쌀 한 되를 李欽哉에게서 빌어와서 종 莫同에게 부탁하여 때문고 더러운 옷을 세탁하다.

19일 丙子, 비가 오다. 이날 왜적이 본 월 17일 □□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듣다.

20일 丁丑, 柳認之가 찾아오다. 이날 저녁에 摠府에서 宿直하다.

21일 戊寅, 왕세자께서 備邊司堂上을 引見하시다.

22일 己卯, 姜紳이 兵曹參知로 되고 朴宗男은 春川府使가 되다. 비가 오다. 江東 속모로 부터 諺文 편지가 오다.

23일 庚辰, 아침에 비가 오다. 이 날에 賓廳에서 또 狀啓 1통을 行在所로 封해 올린다.⁷³⁾

73) 鄭琢, 龍蛇日記, 임진년 7월 조, 李涓應 譯注, 부산대 한일문화연구소, 1962, 11~12쪽.

이처럼 그날 그날의 기사는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고, 동궁 행차에 관한 일과 왕의 안부를 묻는 장계는 자세하게 기록해 작자 개인의 서술 시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왕세자의 피란 상황과 각지에서 들어오는 장계나 치보를 통한 전국 각지의 현황은 비교적 잘 알 수 있다.

초9일 丙申. 順寧君이 來訪하시다. 이 날에 賓廳이 또 장계 1통을 봉하여 행재소에 올린다.

附. 前에 沈岱 편에 玉候가 약간 편치 못하심을 알게 되오니 놀랍고 두렵사움을 이기지 못하나이다. 동궁께서 곧 副率 俞大健을 보내어 문안 드렸삽더니, 간 후 아직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와, 지금은 聖體가 어떠하시는지 더욱 민망하고 걱정스럽사오이다. 동궁 행차가 成川으로 移駐하은 사유는 이미 전에 장계에 올렸사옵니다. 행차가 伊川에 머무시니 경기지방 백성들이 기뻐하며 따르고 부치어 조정의 氣脉이 널리 諸道에 통하와 獻級이 날로 오고 각각 의병을 일으키고 馳報가 속속 들어오매 매우 국운 회복의 희망이 있삽더니, 이천에서 1息程에 있는 玉洞驛에 적병이 나타나 밤을 타서 총포를 쏘는 까닭에 적세의 많고 적음을 알지 못하는지라 부득이 成川으로 되돌아 왔사오나 …… 74)

17일 甲辰. 이 날에 行人使行人 薛藩의 秦文과 許儀後의 條開(조목 조목 열거해서 진술한다는 말)를 얻어 보다.75)

위의 인용문은 왕세자의 행차에 변화가 있을 때에 그날 그날 장계로 행재소에 보고한 내용과 행재소로 가는 秦文과 狀啓 등을 얻어 본 내용이다. 이처럼 이 일기에는 작자 개인의 의견이나 느낌 등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아 전란에 대한 작자의 견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朴東亮의 『寄齋史草』에는 임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작자의 견해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임란에 대응하는 조정의 모습과 관료들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처음 임금이 서울을 떠날 적에 선비와 서민들만이 모두 나라의 형세가 반드시 떨치지 못할 것이라 할 뿐 아니라, 유식한 벼슬아치들도 또한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 생각하여, 蔭官과 閑散·文官으로 호종하는 자가 백에 한둘도 없었다. 대체로 인정이 이미 없어진 판국이 다 책할 수 없었다. 그러나 修撰 任夢正은 하루 앞서 피하여 숨고, 正言 鄭士信은 겨우 盤

74) 정탁, 용사일기, 임진년 8월 조, 위의 책, 47~48쪽.

75) 정탁, 용사일기, 임진년 8월 조, 위의 책, 70쪽.

松亭에 이르렀다가 달아나고, 持平 南瑾은 延曙에 이르러서 달아나고, 그 나머지의 郎署와 百司의 小官들은 제멋대로 흩어져 갔다. 대가가 평양에 당도하자 大司成 任國老는 어머니 병이 들었다 청탁하여 소를 올리고 명을 기다리지 않은 채 가 버렸다. 吏曹佐郎 許箴은 그의 친근한 사람에게 부탁, 召募官이 되어서는 가족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翰林 趙存世와 金善餘, 注書 任就正과 朴鼎賢 등은 宣傳官 成祐吉을 유인 협박하여 안주에 도착하기 전에 달아나고 獻納 李廷臣은 영변에 이르러 달아났다. 판서 韓準은 낙상하였다 청탁하고 도망쳐서 양덕에 이르러서는 “대가가 이미 요동으로 건너갔으니 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공공연하게 말하고, 巡察使 洪汝諤, 兵曹佐郎 金義元은 북도에서 이곳으로 와서는 한준의 말을 듣고, 상하의 관원이 일시에 통곡하고 흩어져 갔다. 持平 李慶祺는 명을 받들어 군사를 모은다 하고는 곧 도망가고, 승지 閔瀾, 참판 尹又新은 정주에서부터 흩어져 갔다. 그래서 이때에 호종한 자는 수십 인에 지나지 않았고, 세자를 시종한 자도 또한 수십인에 지나지 않았다.⁷⁶⁾

위 인용문은 선조가 몽진할 때의 정황을 서술한 것으로 조정 관료들이 각종 핑계를 이유로 호종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전란을 맞아 자신의 안위에만 급급했던 관료들의 행적을 통해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관료들의 背任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大駕가 도착하는 곳마다 사람이 없어 갖은 고생을 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鄭昌衍을 禮曹判書로 삼고, 洪麟祥을 副提學으로 삼았는데, 모두 구두로 제수하였다. 그때 대가가 개성을 향하려 할 때 해가 한낮에 가까웠으나 수라를 올리지 못했으며, 군졸과 무부가 모이지 아니 하였다. 長湍府使 具孝淵은 도망하여 숨고, 나타나지 아니 하므로 승지 등이 직접 경기감사 權徵을 불러 지휘케 하니, 집에 누워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승지 등이 노하여 꾸짖어도 응하지 않았다.⁷⁷⁾

이보다 앞서 승지 閔汝慶·盧稷 등은 임진강의 방어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병을 청탁하고 나오지 않다가, 이때에야 나라 일이 이미 잘못 되어 가는 것을 보고 맨 먼저 성을 나갔다. 사대부들이 이것을 본받아 도망가려는 자들이 많았다.⁷⁸⁾

大駕가 가는 곳마다 관리들은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임금이 굶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조정 관료들이 이를 책망하였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관료들의 이런 행동은 일반 사

76) 朴東亮, 寄齋史草, 壬辰日錄, 국역대동야승 13권, 민족문화추진회, 1989, 194~195쪽.

77) 박동량, 기제사초, 임진일록1, 위의 책, 207쪽.

78) 박동량, 기제사초, 임진일록2, 위의 책, 230쪽.

대부에게까지 이어져 상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車駕가 지나는 곳마다 아랫 사람들이 저지르는 행패가 평시의 갑절이나 되었다. 그것은 환관의 종들이 백관의 종들에 비하여 더욱 심했다. 金岩에 도착하던 날에는 떡과 반찬을 빼앗으려고 御所에까지 함부로 들어왔다. 宣傳官이나 여러 武官도 금하지 못하였고, 상에게 드리는 물건도 또한 빼앗기게 되었다.⁷⁹⁾

중세의 엄격한 신분 질서가 유지되던 조선조 사회에서 임금의 처소에까지 마구 들어와 먹을 것을 빼앗아 가는 이같은 현상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전란으로 인해 왕권이 실추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란으로 인한 피해는 아래로는 일반 백성들에서부터 위로는 왕에게까지 상하가 따로 없이 나타남을 호종실기를 통해서 두루 볼 수 있다.

대가가 龍濟館에 당도하여, 목사의 居所에 行宮을 정하고 거처하였다. 이때 성중의 인민은 모두 흩어졌고, 닭·개 등이 한 마리도 없었고, 새도 날지 아니하여 거처는 산의 廢寺와 같았다. 從官 수십 인이 행궁 근처 인가에 나누어 투숙하였다. 거개가 황량하고 困迫하여 단지 한 두 노복만을 데리고 있었다. 李誠中 부자는 단지 종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때로는 끼니를 걸러서 남에게 의지하여 날을 보냈다.⁸⁰⁾

大駕가 이른 곳의 주변 환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사람은 물론 짐승들도 눈에 띄지 않아 마치 폐사와 같다고 했다. 전란으로 인한 일반 백성들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추된 왕권은 명나라 구원 장수를 맞이하는 장면에서도 보인다.

요동 游擊 史儒·原任叅將 郭夢徵이 1천 기를 이끌고 林畔館에 이르니, 임금이 곤룡포를 입고 翼嬪冠을 쓰고 가서 그를 만나 보았다. 재배의 예가 끝난 다음 상이 이르기를, “변변치 못한 내가 나라를 잘못 지켜 오늘의 화를 불러들여 天朝의 대인에게까지 수고를 끼치게 되니, 황공함을 이길 수 없소.”하니, 史·郭 두 장수가 아뢰기를, “일찍이 평양을 구원하지 못했음이 한이오나 사세가 이미 이렇게 되었고 祖摠兵도 의주에 도착하였으니, 마땅히 돌아가 祖爺와 같이 의론하여 결정하려 합니다. 귀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한 나라의 흥망이 大人의 진퇴에 달려 있으니, 모든 지휘를 성실히 받아들일것소.” 하자, 이 때에 여러 신하들이 혹은 天兵이 진군할 적에 도원수와 합세해야 한다 하기도

79) 박동량, 기재사초, 임진잡사, 위의 책, 291쪽.

80) 박동량, 기재사초, 임진일록2, 위의 책, 240쪽.

하고, 혹은 마땅히 그들의 분부를 들어야 한다 하여, 말들이 분분하였다. 광목정이 귀국의 군신은 마치 모여서 송사하는 것과 같으니, 너무도 무례하다고 말하여, 임금의 손을 흔들어 그들을 제지시켰다.⁸¹⁾

임금의 권위는 이미 몽진길에 실추되었음을 보았거니와 명나라 장수를 맞이해서는 그들에게 “한 나라의 흥망이 大人의 진퇴에 달려 있으니, 모든 지휘를 성실히 받아들여주소.”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진 왕권을 볼 수 있다. 전란으로 인해 나약해진 왕의 모습은 천자의 조칙을 받는 장면에서 더 잘 드러난다.

천자가 선정해 보낸 行人 薛藩이 조칙을 받들고 와서 반포하니, 상이 義順館 앞길로 나가 맞이하고, 龍滿館에서 조칙을 선포하였다. 조칙 중의 말뜻이 극히 위로하고 면려하는 것이었고, 심지어, ‘군계 신하의 절개를 지킨다면 마땅히 조처하겠다’는 말까지 있었다. 그것은 왜놈에게 항복할까 염려하여 먼저 위로하고 면려하는 말을 보낸 것이다. 상이 손수 조칙을 받들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내어 통곡하니, 위로는 臣僚로부터 아래로는 천인과 비복에 이르기까지 크게 통곡하지 아니하는 자 없었다.⁸²⁾

천자의 조칙을 받고는 소리내어 통곡을 하는 장면이다. 나라의 운명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扈從實記에는 왕의 처지는 물론이고 조정 신하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서술되어 있다.

아! 정철 등의 이 계책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옛날의 나라에서는 만일 변란을 만나게 되면 雄藩·大鎮과 혹은 충신 열사가 각각 종실을 받들어 한 구석지의 땅이라도 보유하면서, 옛 것을 회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면면히 나라의 奉祀는 끊지 않았었다. 오늘의 형세는 지역이 좁고 작은 데다가 8도가 함께 침략을 받아, 의지할 만한 웅변·대진이 없고 또 일을 성공시킬 만한 충신 열사의 기틀도 없으니, 비록 산골짜기로 도망한다 해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 뿐이다. 설사 대가가 요동에 건너간다 하더라도 중국의 사람들이 종묘와 사직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비록 세자에게 전하여 주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역시 임금이 종묘의 신주를 수레에 싣고 떠나는 도리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세자 홀로 싣고 외진 한 곳으로 향한다는 것도 피란을 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 이것이 종묘의 신주를 받들고 한 진

81) 박동량, 기재사초, 임진년 6월, 위의 책, 190쪽.

82) 박동량, 기재사초, 임진일록3, 위의 책, 250쪽.

을 세워서 만에 하나라도 회복할 희망을 삼음이 되겠는가? 대신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곡절을 두루 들어 세자와 두 궁을 받들고 동행하여 한 곳에서 죽고 사는 계책을 삼아야 할 것인데, 이미 이러한 계책을 내지 못했고, 또 면대를 청한 자리에서도 한 마디도 발언하지 못하고 물러 나왔으니, 나라일이 여기에 이른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⁸³⁾

鄭澈과 柳成龍 등은 사세로 보아 요동으로 건너가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일찍 大位를 정해야 옳겠다고 판단하고는 왕을 면대하기를 청했다. 그러나 면대를 청한 자리에서도 한 마디도 발언하지 못하였다. 작자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나라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대신들이 올바른 계책을 세우지 못한 탓이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호종실기는 이처럼 왕을 따랐던 작자들에 의해 쓰여진 실기문학으로서 왕과 조정 관료들에 관한 기록이 많으며, 사적인 기록보다는 공적인 기록의 성격을 갖고 있다.

6. 맺음말

이상으로 임란 실기문학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 보았다. 임란 실기문학은 작자의 체험 양상이나 신분, 처지, 활동 등에 따라 종군실기, 포로실기, 피란실기, 호종실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유형별 특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從軍實記는 작자가 임진왜란에 장군, 종사관, 의병 등으로 참전하여 왜적과의 전투 상황, 진중의 생활상 등을 서술한 것으로, 李庭菴의 『西征日錄』, 李擢英의 『征蠻錄』, 柳成龍의 『懲毖錄』, 尹國馨의 『聞韶漫錄』, 李魯의 『龍蛇日記』, 李舜臣의 『亂中日記』, 趙靖의 『壬亂日記』, 鄭慶雲의 『孤臺日錄』, 趙慶男의 『亂中雜錄』, 安邦俊의 『隱峯野史別錄』 등이 이에 속한다. 從軍實記의 특성은 陣中에서의 생활상,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전투 장면에 대한 생생한 묘사, 인간적 고뇌의 모습 등을 진솔하게 서술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간적 고뇌의 모습을 통해서 실기문학이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기록하는 기록물 이상의 문학적 감동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捕虜實記는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잡혔다가 풀려난 작자들이 쓴 실기문학으로 權斗文의 『虎口錄』, 魯認의 『錦溪日記』, 姜沆의 『看羊錄』, 鄭慶得的 『萬死錄』, 鄭希得的 『月峯海上錄』, 鄭好仁의 『丁酉避亂記』 등이 있다. 捕虜實記는 다른 임란 실기문학에 비해 짜임

83) 박동량, 기재사초, 임진년 6월, 위의 책, 189쪽.

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피란(방어)-피랍-포로생활-탈출-고난-귀향'이라는 서술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상으로 볼 때 포로실기에는 포로들의 생활상이 여러모로 잘 드러나 있다. 異國에서 겪는 생활의 고단함과 그로 인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주로 서술되어 있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事物의 情景化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詩를 통해 표현되기도 해 포로실기는 다른 임란 실기문학에 비해 문학적 형상화가 뛰어난 편이다. 望鄉의 情調는 귀환의지로 표출되어 서술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으로 귀화해 그곳 풍속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의 생활상도 서술되어 있다.

遯亂實記는 왜적을 피해 여러 지방을 전전하며 피란 생활을 서술한 것으로 吳希文의 『瑣尾錄』, 柳珍의 <임진록>, 鄭榮邦의 <壬辰遭變事蹟> 이 있다. 이들 작품에는 피란길에 올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겪은 쓰라린 피란 생활의 광경과 체험한 이야기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전란으로 인한 참상이 여실히 서술되어 있으며, 작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로 서술되어 있어 개인의 일상사에 관한 내용이 많은 편이다. 구성상으로 볼 때는 가족간의 이산과 해후라는 구도로 짜여져 있기도 하다.

扈從實記는 선조가 임진년 4월 30일 피란길에 올라 의주로 향했는데, 그 때 大駕를 따르면서 왕의 곁에서 보고 듣고 겪은 바를 서술한 실기문학이다. 鄭琢의 『龍蛇日記』, 金涌의 『扈從日記』, 朴東亮의 『寄齋史草』가 여기에 속한다. 扈從實記는 公的 기록의 성격이 우세하여 다른 실기문학에 비해 문학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특기할 만한 것은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당시 임금의 몽진 상황이나 조정 관료들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들 유형의 실기문학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의 정조이다. 이러한 정조가 강한 실기문학으로는 종군실기와 포로실기로, 체험자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서술방법 면에서는 묘사의 수법이 뛰어나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생동감 있는 정황 서술과 사실적인 묘사는 상상에 의한 허구적 문학과는 차별되는 것으로 문학적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점이 역사 기록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參考文獻

1. 資料

- 姜 沆, 看羊錄, 국역 해행총재 2, 민족문화추진회, 1989.
 權斗文, 虎口錄, 權寧植 譯, 정문사, 1992.
 金 涌, 雲川全集, 경인문화사, 1977.
 魯 認, 錦溪日記, 국역 해행총재 9, 민족문화추진회, 1989.
 朴東亮, 寄齋史草, 국역 대동야승 13, 민족문화추진회, 1967.
 安邦俊, 隱峰野史別錄, 이상익·최영성 역, 아세아문화사, 1996.
 吳希文, 瑣尾錄, 李民樹 譯, 海州吳氏楸灘公派宗中, 1990.
 柳成龍, 懲忿錄, 李民樹 譯, 乙酉文化社, 1970.
 柳 軫, 임진록, 洪在然 역, 국문학연구 제7집, 효성여대국문과, 1983.
 李 魯, 龍蛇日記, 全圭泰 譯, 乙酉文化社, 1976.
 李舜臣, 亂中日記, 이석호 역, 집문당, 1993.
 李廷穉, 西征日錄, 李章熙 譯, 探求堂, 1977.
 李擢英, 征蠻錄, 李虎應 譯, 義城文化院, 1992.
 鄭慶得, 萬死錄,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1986.
 鄭慶雲, 孤臺日錄, 南冥學研究 제2집, 제3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2, 1993.
 鄭榮邦, 壬辰遭變事蹟, 정석용 역, 시사춘추 6월호, 1991.
 鄭 琢, 龍蛇日記, 李渭應 譯注, 부산대 한일문화연구소, 1962.
 鄭好仁, 丁酉避亂記, 이현석 역, 함평군 향토문화연구회, 1986.
 鄭希得, 月峯海上錄, 국역 해행총재 8, 민족문화추진회, 1989.
 趙慶男, 亂中雜錄, 국역 대동야승 6, 민족문화추진회, 1989.
 趙 靖, 趙靖先生文集, 李鉉淙 編譯, 趙靖先生文集刊行委員會, 1977.

2. 論 著

- 김태준 외,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蘇在英, 壬丙兩亂과 文學意識, 韓國研究院, 1980.

- _____, 英雄傳承의 文學的 形象化, 승실어문, 2집, 승실대 국어국문학회, 1985.
- _____, 壬亂被虜들의 捕虜體驗, 旅行과 體驗의 文學(일본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 李東根, 壬亂戰爭文學 研究, 국문학연구 제63집, 서울대 대학원 국문학연구회, 1983.
- 李塚衍, 壬辰倭亂 捕虜實記 研究, 도서출판 박이정, 1995.4.
- _____, 실기문학과 서사문학, 韓國敘事文學史의 研究(경산사재동박사화갑기념논총), 중앙문화사, 1995.
- 張庚男, 壬亂 實記文學 〈임진록〉 研究, 崇實語文 제10집, 승실어문연구회, 1993.
- _____, 壬亂 實記文學의 敘述特徵 研究, 崇實語文 제13집, 승실어문학회, 1997.
- _____, 壬辰倭亂 實記文學 研究, 승실대 박사학위논문, 1997.12.
- 黃淇江, 壬辰倭亂과 實記文學, 一志社, 1992.

Abstract

A study on setting up sub-patterns of 'the Silki Literature about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壬亂 實記文學 ; the Imran Silki Literature)' and their features.

Jang, Kyung-Nam

This study set up sub-patterns of 'the Silki Literature about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壬亂 實記文學 ; the Imran Silki Literature)' and observed their features.

Jongkoon Silki(從軍實記) was described writer's joining the battle (as a general, a staff officer and a righteous army) and the statue of with Japanese force. *Yi-jung-am*(李廷範)'s 『*Seo-jung-il-rok*(西征日錄)』, *Yi-tak-yung*(李擢英)'s 『*Jung-man-rok*(征蠻錄)』, *Yoo-sung-ryong*(柳成龍)'s 『*Jing-bi-rok*(懲毖錄)』, *Yoon-kook-hyung*(尹國馨)'s 『*Moon-so-man-rok*(聞韶漫錄)』, *Yi-ro*(李魯)'s 『*Yong-sa-il-ki*(龍蛇日記)』, *Yi-soon-sin*(李舜臣)'s 『*Ran-joong-il-ki*(亂中日記)』, *Jo-jung*(趙靖)'s 『*Im-ran-il-ki*(壬亂日記)』, *Jung-kyung-woon*(鄭慶雲)'s 『*Ko-dae-il-rok*(孤臺日錄)』, *Jo-kyung-nam*(趙慶男)'s 『*Ran-joong-jab-rok*(亂中雜錄)』, *Ahn-bang-joon*(安邦俊)'s 『*Eun-bong-ya-sa-byul-rok*(隱峰野史別錄)』 belong to this kind of work. *Jongkoon Silki*(從軍實記) reflects a barrack life, worry and missing for family, a realistic description of fight and mental agony. Especially the appearance of humanic mental agony made the Imran Silki Literature known as a work having literary impression beyond simple delivery and writing a fact.

Poru Silki(捕虜實記) is a kind of the Imran Silki Literature written by writers who were released from Japanese prison. *Kwon-doo-moon*(權斗文)'s 『*Ho-goo-rok*(虎口錄)』, *No-in*(魯認)'s 『*Keum-kye-il-ki*(錦溪日記)』, *Kang-hang*(姜沆)'s 『*Kan-yang-rok*(看羊錄)』, *Jung-kyung-deuk*(鄭慶得)'s 『*Man-sa-rok*(萬死錄)』, *Jung-hee-deuk*(鄭希得)'s 『*Wol-*

bong-hae-sang-rok(月峰海上錄)』, *Jung-ho-in*(鄭好仁)'s 『*Jung-yoo-pi-ran-ki*(丁酉避亂記)』 belong to the work. It was relatively well composed in comparison with other the Imran Silki Literature. It took a narrative structure : defense - refuge - a prisoner's life - escape from a prison - suffering - return home. In a view of substance, prisoner's lives were well describee in some ways. A life's suffering in a foreign country and nostalgia for his country. *Poro Silki*(捕虜實記) is outstanding in literary figuring because the nostalgia was expressed by pathetic scenes or poetry. The emotion was revealed as a will to come back. On the contrary, there were some people's lives who adapted themselves to Japan.

Piran Silki(避亂實記) is a refuging description which people fled from Japanese force. *Oh-hee-moon*(吳希文)'s 『*Soae-mi-rok*(瑣尾錄)』, *Yoo-jin*(柳軫)'s 『*Im-jin-nok*』, *Jung-yung-bang*(鄭榮邦)'s 『*Im-jin-jo-byun-sa-juk*(壬辰遭變事蹟)』 belong to this kind of work. There described some incidents around the writer as well as a lot of disastrous scenes, so we can observe a person's private affairs. In a view of structure, it was got forced the separated families and the reunion of the divided.

Hojong Silki(扈從實記) is a Imran Silki Literature which a writer described things to see, to hear, to do and to be done as following the king's sedan chair when King *Sun-jo*(宣祖) fled to *Uijoo*(義州) from the war in April 30, 1592. *Jung-tak*(鄭琢)'s 『*Yong-sa-il-ki*(龍蛇日記)』, *Kim-yong*(金涌)'s 『*Ho-jong-il-ki*(扈從日記)』, *Park-dong-ryang*(朴東亮)'s 『*Ki-jae-sa-cho*(寄齋史草)』 belong to this kind of work. *Hojong Silki*(扈從實記) is inferior to other the Imran Silki Literature in literary aspects. Because it specified as a formal writing. But the happening of the court was precisely described and we can assume the king's refuge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figures at that time.